

대한민국을
수출하겠습니다.



국내 항공업계 최초, “10억불 수출의 탑” 수상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으로
국가 항공산업의 수출산업화를 견인한 KAI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습니다.

Fly
Together

2017 MARCH Vol.207

www.koreaaero.com



Monthly Issue

A320 WBP #1,000호기 출하
및 무결함 100일 달성

KAI 패밀리

도란도란 말하며
사일사일 걷는다

kaiwebzine.com

반응형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PC나 스마트폰에
위의 주소를 넣으면 KAI 사보로 연결됩니다.

GWP Idea ③ Pride

자기다움을 잊지 않으면서도 항공우주산업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고등훈련기 T-50 개
발로 시작된 우리의 자부심은 KF-X의 성공적인 개발로 더 단단해집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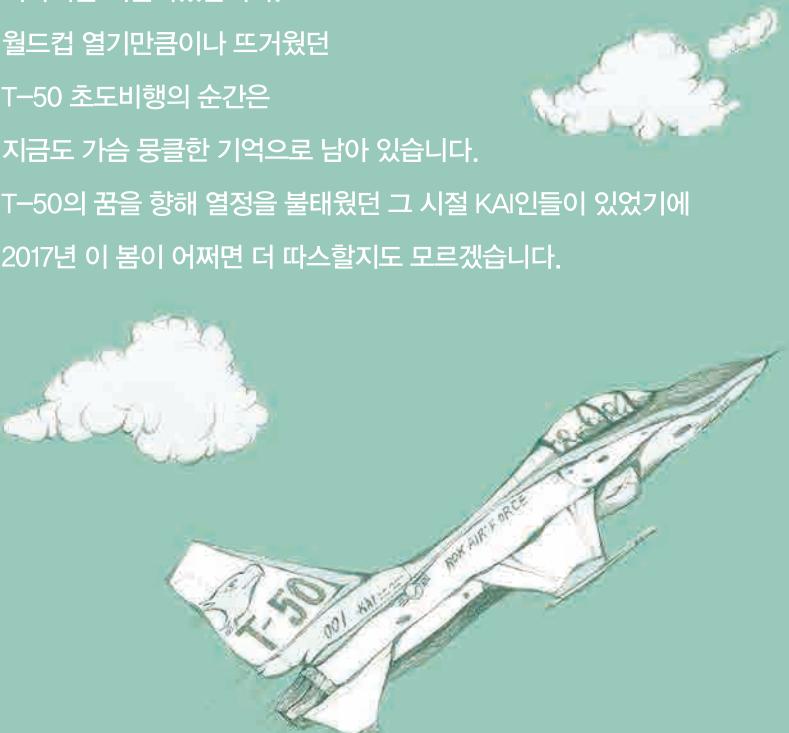


꿈이 있어 더 따스한 봄

햇살이 달라졌습니다.
코끝에 부딪히는 바람도 제법 부드러워졌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오는 따스함이라
봄은 언제나 소중하고 설립니다.

〈Fly Together〉 3월호에도
봄날처럼 훈훈한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KAI 패밀리'에서는 통영의 나폴리농원을 찾아
때 이른 봄을 만끽하고 왔고,
거제도 앞바다에서 만난 KAI 바다낚시 동호회는
2017년 첫 바다낚시를 떠났습니다.

특히 'KAI 히스토리'에서는 2002년의
이야기를 되돌아봤습니다.
월드컵 열기만큼이나 뜨거웠던
T-50 초도비행의 순간은
지금도 가슴 뭉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T-50의 꿈을 향해 열정을 불태웠던 그 시절 KAI인들이 있었기에
2017년 이 봄이 어쩌면 더 따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대웅

Contents

www.koreaaero.com
MARCH 2017 / Vol. 207



웹진 〈Fly Together〉
QR코드



하나 된 KAI

24



더 강한 KAI

04

04 Monthly Issue
A320 WBP #1,000호기 출하
및 무결함 100일 달성

05 CEO 통정 & News Focus
2017 전사혁신과제 Kick-off 회의

10 KAI 히스토리
2002년, KAI의 꿈은 이루어졌다

14 반갑습니다
2002년 8월 Golden Eagle의 비상,
그리고 14년 6개월 그 후

18 역사 속 항공인
제트엔진 개발의 선구자 한스 폰 오하인

20 Fly News
대만, 초음속 훈련기 개발 착수 외

발행일 2017년 3월 6일(통권 207호 · 3월호 · 비매兜)
발행인 하성용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기업문화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로 78
담당자 배화윤 차장(055-851-9485)
제작대행 디지인신화(02-324-6852)
인쇄 삼화인쇄(02-850-0850)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사천 라00004

이 책은 한국기행률윤리위원회의 도서윤리위원회 및
집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린
외부 필자의 원고는 KA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I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며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행복한 KAI

32

32 사회공헌
이웃의, 이웃에 의한, 이웃을 위한,
함께 걷는 나눔봉사단

36 KAI 패밀리
도란도란 말하며 사알사알 걷는다

40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낚는 맛, 먹는 맛, 즐기는 맛
바로 이 '맛' 아닙니까

42 나의 여행 이야기
바다 품은 섬에서의 하룻밤, 부자의 백패킹

46 세대공감 KAI
달콤 쌉싸름한 미팅의 추억

49 이야기 한마당
경영목표 달성을 다짐하다!

Monthly Issue



A320 WBP #1,000호기 출하 및 무결함 100일 달성



2월 20일 A320의 날개 하부 구조물인 WBP(Wing Bottom Panel) #1,000호기 출하와 무 결함 100일 달성을 위한 CEO 격려 행사는 산청공장에서 열렸다. 행사는 하성용 사장, 생산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기체생산2실장, 관련 팀장 및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 했으며 2014년 5월 초호기 납품 후 지속적인 공정 개선과 Ramp-up으로 33개월 만에 #1,000호기를 출하하는 성과 및 생산 안정화와 품질 향상을 통한 무결함 100일 달성을 관한 보고가 이어졌다. 하성용 사장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기체생산2실장을 비롯한 관련 팀장, 구성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에어버스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더욱 굳건한 KAI가 되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로 사기를 진작했다.

CEO 동정 & News Focus



2017 전사혁신과제 Kick-off 개최

2월 1일 하성용 사장 주관으로 전사혁신과제 Kick-off가 열렸다. 부사장 및 관련 본부장, 전사혁신 과제 T/F 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수주 확대 2건, 원가혁신 2건, 경쟁력 강화 1건 총 5건의 혁신과제별 해당 프로세스 오너인 각 본부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하성용 사장은 “2017년은 대외 수주활동을 위해 더욱 중요한 한 해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원가와 품질 경쟁력이 수주 성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소형민수헬기 체계개발 생산착수 행사 실시

1월 23일 본격적인 생산착수 단계 진입을 알리는 ‘소형민수헬기(LCH) 체계개발 생산착수’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개발부문장 장성섭 부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자동차항공과장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형민수헬기개발사무국, 에어버스 헬리콥터스 등 사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5년 6월 개발 착수한 LCH 개발사업은 같은 해 12월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상세설계검토회의(CDR)를 통해 시제기 제작을 결정했다. 이후 도면출도 및 생산 준비 과정을 거쳐 생산에 들어갔다. LCH 시제기는 총 2대가 제작되며 시제 1호기는 2018년 5월, 시제 2호기는 2019년 2월 출고 예정이다.

기념사에서 장성섭 부사장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정부 및 참여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LCH 개발사업이 설계 단계에서 시제기 제작 단계로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계획된 개발 일정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형민수/무장헬기(LCH/LAH) 체계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 추진하는 민·군 헬기 통합개발사업으로 우리 회사가 체계개발을 주관한다. LCH는 2021년, LAH는 2023년 체계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다.



2017년 개발사업관리본부 경영목표 달성 전략 공유회

개발사업관리본부는 김임수 본부장 주관으로 1월 24일 KF-X, LAH/LCH 사업별로 2017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공유회를 가졌다. 이번 공유회는 임직원들 간의 계층별 역할과 과제별 중점 추진 전략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자리였다. 또한 사업 전 기간 내에 2017년 사업 주요 목표에 대한 위험요소 선제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7년 상반기 협력업체 경영설명회 개최

1월 25일 '2017년 상반기 협력업체 경영설명회'가 에비에이션센터의 스카이홀에서 개최됐다. 설명회에는 공식한 구매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15명과 제조분과 22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공식한 구매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열린 경영설명회에서는 2017년 우리 회사의 민수사업 현황과 동반성장 정책이 발표되고 26차 혁신활동 성과업체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공식한 구매본부장은 APT사업 현황 및 중요성과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 확대와 민수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사무소, 외부 강사 초청 특강

2월 8일 서울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1/4분기 외부 강사 초청 특별 강연회가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드림강의실에서 열렸다. 전 삼성생명의 보험여왕 출신인 정영숙 강사는 초청된 이번 특강은 '수주/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실제 사례'를 주제로 했다. 정영숙 강사는 "고객 감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당당함이 중요하다"며 영업사원이 가져야 할 소양과 자세를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우리 회사의 미래 면모 창출을 담당하는 영업부서 직원들에게 책임감과 용기를 북돋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자리가 되었다.



상륙기동헬기사업 양산 착수회의 진행

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상륙기동헬기사업 양산 착수회의가 진행됐다. 첫날인 2일에는 우리 회사에 처음 방문한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이 상륙기동헬기 1호기의 동체조립공정을 순시하고 상륙기동 시제항공기를 지상에서 탑승했다.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은 "현재까지 해병대는 수평적 작전을 수행했지만 상륙기동헬기를 통해 입체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에서 상륙기동헬기가 납품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KAI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고 전했다.

해병대는 지금까지 연합작전을 통해 미국의 상륙기동헬기를 기용해오다 처음으로 국산 상륙기동헬기를 도입한다. 상륙기동헬기는 상륙함에서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상륙작전,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공중강습, 도서 지역 국지 도발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수행한다.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상륙기동헬기는 해상·함상 운용에 최적화되었고, 함상에서 운영하기 쉽도록 주로터 접이 장치가 추가된다. 또한 기체 방염 등 부식 방지, 지상 및 함정 기자국과의 교신을 위한 장거리 통신용 HF무전기, 전술항법장치, 보조연료탱크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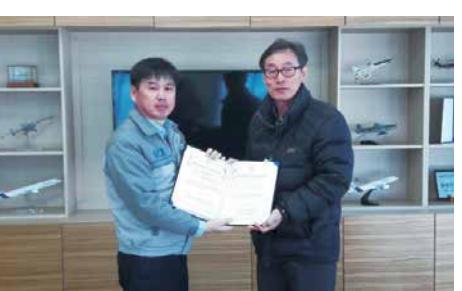
한-인니 공동사업관리실 개소식 진행

2월 8일 한국형전투기(KF-X/JF-X) 국제공동개발의 본격적인 사업 관리 추진을 위해 한-인니 공동사업관리실(JPMO) 개소식이 우리 회사 제2사업장에서 열렸다. 개소식에는 한국형전투기사업단,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우리 회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과 현판식이 있었다. 공동사업관리실 개소는 KF-X/JF-X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도면밀한 사업 관리의 시작을 알리는 데 의미가 크다.



구매본부 경영설명회 개최

2월 7일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한 공감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매본부 경영설명회를 개최했다. 회사 현황과 구매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인 이번 설명회에는 공식한 구매본부장을 비롯해 본부 임직원 26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전사·본부 경영 지표 공유를 시작으로 본부 전략회의 리뷰, 실별 핵심과제 발표, 구매본부장 당부 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질의응답 등 본부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속감을 높였다. 구매본부 경영설명회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청사업장, 화재안전우수사업장 수여식

2월 15일 산청사업장이 소방우수건물로 인증받고 화재안전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관련 수여식이 열렸다. 산청사업장은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 점검과 화재 예방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12월 이후 연속 인증을 받았다.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시행한 특수 건물 중 화재위험도가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해당 건물 또는 사업장이 화재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도록 인정패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T-50IQ #1~#6호기 초도 출하

2월 27일 T-50IQ #1~#6호기가 항공기동에서 분해 및 포장을 거쳐 출하됐다. 이라크 국방부에 납품하는 이 사업은 2013년 12월에 계약되어 T-50 항공기 24대, 수리부속, 지원장비, 교육훈련, 무장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 회사는 향후 2018년 4월까지 총 24대의 항공기를 차례대로 납품할 예정이다.

KAI 나눔봉사단

2월 사회공헌활동

장수사진 봉사활동

2월 11일 나눔봉사단 재능분과가 풀뿌리봉사 일환으로 뜰사랑봉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불우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제작해 드렸다. 격월로 열리는 이 봉사는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사진 촬영과 액자 제작해 기증하는 봉사활동이다. 올해는 민간요양원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천 지역 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장학 물품 기증

2월 15일 나눔봉사단이 졸업시즌을 맞아 사천 지역 20개 중·고등학교의 우수학생에게 총 3,000만 원 상당의 장학 물품을 전달했다. 우수학생은 학교 2명이 선정됐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태블릿PC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신형 노트북PC를 증정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을 선물하였다.

사랑의 칼국수·빵 봉사활동

2월 18일 '사랑의 칼국수 및 빵 나눔 봉사'가 진주 대한적십자사 서부희망 나눔센터에서 열렸다. 임직원과 가족 55여 명의 봉사자가 참석한 봉사활동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오전, 봉사자들은 사천의 민간 요양시설 어르신들을 위해 쓰일 칼국수 360인 분(180팩)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오후에는 사랑의 빵 봉사에 사용되는 파운드빵 230개를 직접 만들어 사천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칼국수 봉사는 열악한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들께 맛있는 한 끼 음식을 대접하여 작은 위로를 선사했다. 봉사단은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칼국수와 빵 봉사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10
KAI 히스토리
2002년.
KAI의 꿈은 이루어졌다



14
반갑습니다
2002년, 8월
Golden Eagle의 비상,
그리고 14년 6개월 그 후



18
역사 속 항공인
제트엔진
개발의 선구자
한스 폰 오하인



20
Fly News
대만.
초음속 훈련기 개발 착수 외

Section 1 더 강한 KAI

찬란한 역사가 있기에

내일의 태양이 더 밝게 떠오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KAI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건국 이래 최초로 해외 에어쇼에서 시험비행을 한 KT-1이 싱가포르 에어쇼 2002에 전시되어 있다.

많은 사람에게 뜨거웠던 시간으로 기억되는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쾌거 속에서 온 국민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던 그때, KAI인들 역시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한 해를 보냈다. KT-1의 싱가포르 에어쇼 시험비행, 기업문화 선포식, T-50 초도비행 등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 순간.

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 속에서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고, 그 꿈은 KAI인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자부심으로 남아 있다.

기획 배화운 차장 글 김희정

2002년, KAI의 꿈은 이루어졌다

KT-1, 싱가포르 하늘을 날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행기가 맞나요?”

2002년 2월 26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서 개최되었던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국내 최초 독자 개발 항공기인 KT-1 기본훈련기가 성공적으로 시험비행을 마쳤다.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다른 나라 하늘에서 비

행하는 최초의 순간이었다. 현지 신문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싱가포르 교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낀다면 흥분했다.

싱가포르 에어쇼 2002에는 42개국 928개 업체가 참가했고, 해외 주요 인사 등 초청 인원이 2만 2천 명, 관람객이 30만 명에 이르는 등 성황을

연재 순서

- ① 2000년 _ KAI, 새롭게 비상하다
- ② 2001년 _ 세계를 향한 희망의 발걸
- ③ 2002년 _ 자부심의 기억 그리고 희망
- ④ 2003년~2004년 _ 국산 고등훈련기 개발의 태동
- ⑤ 2005년~2006년 _ 대한민국 공군력에 날개를 달다
- ⑥ 2007년~2009년 _ KAI, 세계를 흥행하다
- ⑦ 2010년 _ 수리온,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다
- ⑧ 2011년 _ 도약의 시기, 더 높이 나는 KAI
- ⑨ 2012년 _ 항공우주 산업을 이끈다
- ⑩ 2013년 _ 수리온 시대의 개막
- ⑪ 2014년 _ 새로운 기회, 페루를 만나다
- ⑫ 2015년~2016년 _ 희망의 결실, 또 다른 시작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서 시험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52시험평가전대 281대대의 장창열·온용섭·정근화 소령.

이뤘다. 2001년 있었던 9.11 테러의 영향으로 대회 규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KAI의 위상은 여전했다. 세계 항공산업의 흐름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그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시 목적보다는 춤관 위주로 에어쇼에 참가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KT-1의 위용을 앞세운 KAI가 어느덧 세계의 항공우주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KT-1 훈련기 양산 및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 T-50 고등훈련기의 성공적인 개발로 KAI의 위상이 달라진 것이었다.

KT-1 시험비행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다. 급선회 기동과 수직기동, 배면 기동, 스톤 턴, 스피드 턴 등 고난도 기동을 선보였고, 그 순간마다 박수갈채를 끌어냈다. 시험비행을 마친 후 세계 각국의 호평과 시승 요청이 이어진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싱가포르 조종사는 KT-1의 시승비행을 통해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며 관심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에어쇼 기간 중 항공기 독자개발 능력을 갖춘 항공 기술국으로 위상을 드높였고, 이후 진행된 동남아, 중남미 등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 상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KT-1은 실제로 이후 터키, 페루, 세네갈 등에 수출되는 쾌거를 이뤘다.

KAI의 기업문화 선포

KAI가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내는 동안 KAI의 기업문화도 자리를 잡아갔다. 2002년 2월과 3월에 걸쳐 진행된 신기업문화 공모에 총 1,008건이

접수되는 등 기업문화를 향한 KAI인의 관심이 뜨거웠다. 현재 사보 제호 이기도 한 'Fly Together'라는 캐치프레이즈도 공모를 통해 만들어졌다.

당시 선정된 '한마음 한 방향으로 비상하는 KAI',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세계 제일 우리 회사' 등의 표어 속에는 한마음으로 나이가고자 하는 KAI인들의 열망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열망 속에서 기업문화사무국이 탄생했다. 1999년 10월 회사 출범 이후 기업문화 체계가 부분적으로 인지되어왔지만, KAI를 대표하는 기업문화로의 강력한 모티브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기업문화사무국은 KAI만의 기업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실천 전략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기업문화 선포식에서 KAI 깃발을 힘차게 흔들고 있는 KAI인들.



KAI 기업문화 선포식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던 기업문화 선포식은 3천 300여 명의 KAI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대하게 치뤄졌다.

기업문화사무국은 전사적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데 앞장섰고, 항공산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기업문화 체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2002년 4월 9일, 기업문화 선포식이 성대하게 치뤄졌다. KAI의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와 행동규범 그리고 인재상을 선보하는 자리였다.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치뤄진 이 행사에는 3천 3백여 명의 전 임직원이 참석했고 당시 인기를 끌었던 손범수 아나운서와 방송인 김종석이 사회를 맡았다.

'비전과 사명이 새겨진 현수막이 펼쳐지며 기업문화 선포식이 진행되었 다. KAI인 낭독과 선서, 응원단 공연, 단합의 시간 등의 행사가 펼쳐진 후 마지막으로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사기를 제창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

리되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KAI인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목청을 높이며 KAI가 진정 하나로 거듭나는지를 확인했다. 그날 힘차게 흔들었던 KAI의 깃발은 아직도 KAI인들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펄럭이고 있으리라.

T-50 초도비행 성공, 그 뭉클한 순간

붉은악마의 열기가 식어갈 즈음인 2002년 8월 20일, 황금 날개를 활짝 펼친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은 탄성을 터트렸다. 최초의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일명, 골든 이글)의 초도비행이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KAI인들이 꿈과 열정을 담은 T-50 초도비행이 성공하는 순간.

활주로에서 T-50이 굉음을 발하며 뛰쳐나갈 때 모든 사람이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외쳤다.

"닐아라!"

모두의 바람대로 T-50은 당당히 하늘을 향해 질주했다. T-50 개발에 참여했던 KAI인들은 가슴 졸이며 비행 순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행여라도 문제가 있진 않을까 손에 땀을 쥐며 하는 순간이었다. 걱정도 잠시. 서서히 상승 선회를 시작하는 T-50을 바라보며 우리의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드디어 해냈구나!"

걱정은 이내 감동으로 그리고 자부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당시 공군 제2시험평가전대 소속 시험비행 조종사 조광제 중령이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착륙한 순간, KAI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한 자락을 장식했다는 자부심이 밀려오는 순간이었다. T-50에 모든 것을 쏟아붓느라 소홀했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도 함께 밀려왔다.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했던 순간이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던 KAI인들이었다. 지난 1997년부터 미국 록히드마틴 등 국내외 협력업체와 더불어 항공기 설계, 항공 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전방·중앙·후방동체 등의 부품제작과 최종 조립 등 개발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고, 2001년 10월 31일 출고식을 가진 후 10여 개월 만에 초도비행이 시행된 것이었다. 활주로 주행, 이륙, 비행, 착륙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희생한 KAI인들이 있었음을 알기에 그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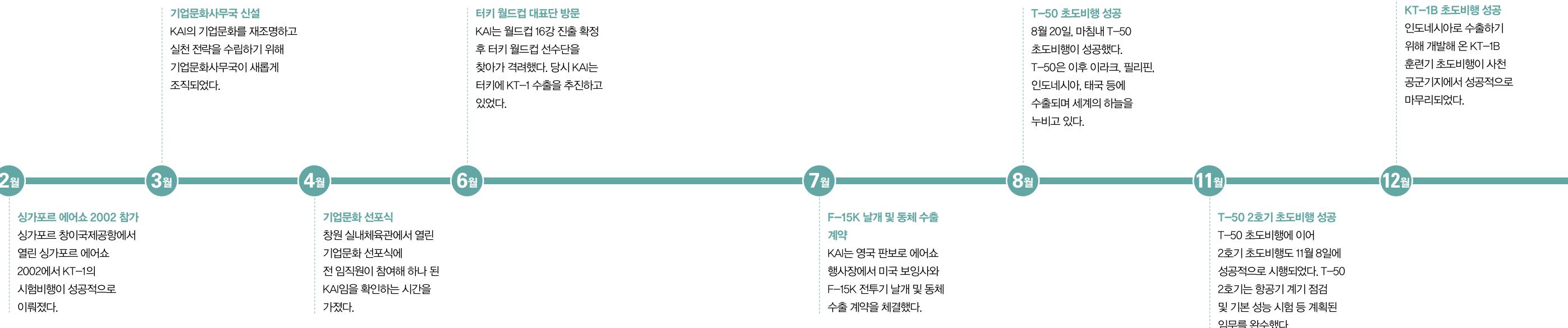
T-50 초도비행을 마친 공군 제2시험평가전대 소속 시험비행 조종사 조광제 중령.

감동은 배가 되었다. 서로 격려하고 고마워하며 함께 기쁨을 나눴던 그날의 KAI인들.

2002년 8월 20일은 대한민국 항공역사의 한순간이기도 하지만, KAI인들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날로 평생 기억될 것이다. 그날의 뜨거웠던 기억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그 순간을 위해 쏟아 부은 수만 시간의 열정 위에 오늘의 KAI가 우뚝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칼럼에 소개된 내용은 2002년 사보 〈KAI〉의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2002년 주요 뉴스



비행계획팀 김찬조 팀장

당시 소속
개발본부 비행계획팀
T-50 체계개발 비행시험계획 수립

현재 소속
고정익개발본부 비행계획팀
고정익항공기 개발과제 비행시험계획 수립

CLS사업관리팀 김창길 부장

당시 소속
항공기생산본부 생산팀3작
T-50 비행지원 업무

현재 소속
해외사업본부 CLS사업관리팀
T-50IQ 항공기운영/ 조종/ 정비/ 교육 실행준비

2002년 8월 Golden Eagle의 비상, 그리고 14년 6개월 그 후

2002년 8월 20일, 오후 4시 20분. 황금 날개를 활짝 펼치고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이 내지르는 기쁨의 탄성과 감격의 눈물은 지상 멀리까지 전해졌다. T-50의 성공적인 비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자신의 정열을 T-50에 쏟아부었던, 그날의 용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T-50 초도비행의 성공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리 박영화 사진 정우철

성능개량기술팀 조정일 팀장

당시 소속
생산본부 MTD기술팀
T-50의 이차동력 담당 생산기술

현재 소속
생산본부 성능개량기술팀
제2사업장 수행사업(KT-100, KT-1, 차군무인기, 성능개량) 기술지원

2002년 8월 20일, T-50 초도비행이 성공이라는 벅찬 감동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김찬조 팀장 T-50의 비상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었죠. 드디어 T-50의 엔진 시동이 켜지고 힘찬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줄이며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초도비행의 성공을 지켜봤는데요. 50분 정도 지났을 때쯤, 비행을 마치고 사뿐히 활주로에 접지하자 개발자들의 힘찬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비행조종사도 감동에 겨운 얼굴이었습니다.

김창길 부장 첫 비행에 성공한 T-50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Ramp장으로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던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감격에 겨워 눈물 흘리는 사우들도 많이 있었죠.

조정일 팀장 아침 일찍 Run-Station #2 Hangar에서 자체 Engine Run으로 항공기 상태를 점검, 초도비행 시 3훈비 활중로의 최종 점검(Last Change Inspection) 검사 수행 후 정비대기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도비행 이륙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벅찬 마음이 들었지만, 초도비행 성공을 확신했기에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수십 번,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고등훈련기,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독자개발이라는 대단한 일을 이뤄내셨는데요. 항공기 개발에 참여하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김찬조 팀장 2002년은 T-50 초도비행이 있는 해이자 동시에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때였습니다. T-50 초도비행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월드컵을 즐기지 않을 수도 없죠. 특히 비행시험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저희 부서는 붉은악마티를 맞춰 입고 월드컵을 함께 즐겼습니다.

김창길 부장 T-50 모형 항공기 전시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관람하시던 분들이 '정말 한국에서 독자기술로 개발한 게 맞는지'를 계속 질문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생했다고 격려를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맛있는 저녁을 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T-50 개발에 참여한 저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찬사를 많이 받았었지요.

조정일 팀장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한번은 시제1호기 최초 EPS(Emergency Power System) 기능을 점검하는데, EPS의 연료 조절밸브 결함으로 배기구에서 화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항공기 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자리를 피하지 않고 소화기부터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항공기 손상도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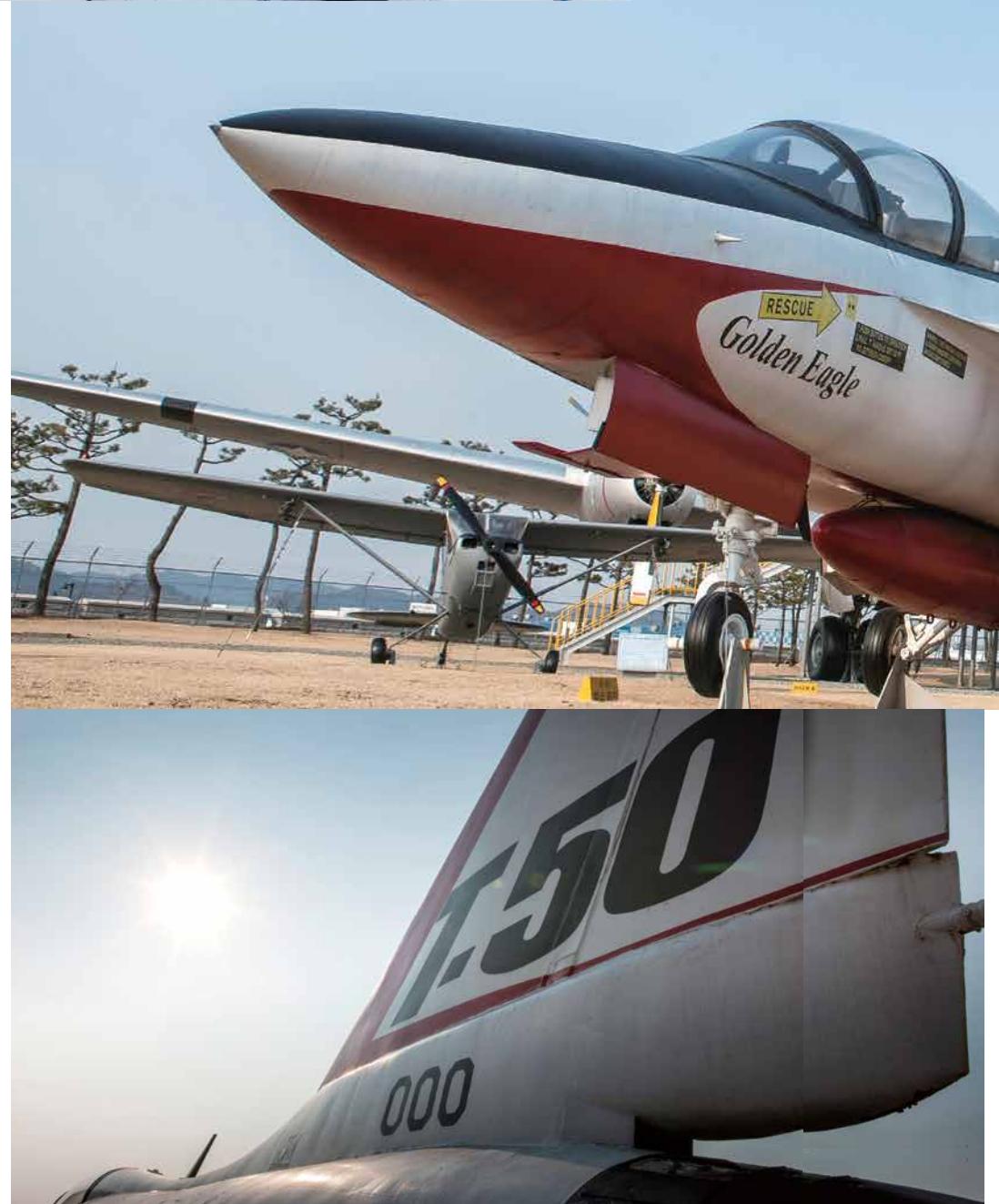


초도비행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준비를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또 직장에만 전념하느라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부족하셨을 텐데요. 미안하고 고마운 가족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세요.

조정일 팀장 당시에는 사무실 책상이나 바닥에서 잠을 자는 일이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로 밤샘 작업이 많았습니다. T-50 초도비행을 준비하면서 일 년 동안 딱 하루만 쉬었던 것 같습니다. 364일 동안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었죠. 아이들이 세 살, 한 살이어서 돌봐줘야 하는 시기였는데, 아내에게만 맡겨두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죠.

김창길 부장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시험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다 보니 순간순간 즐음을 못 이겨 항공기 좌석에 앉아서 즐곤 했습니다. 항공기 개발에 집중하느라 가족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도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자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대견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찬조 팀장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의 초음속 항공기 개발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T-50 체계개발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 하에 밤낮, 휴일 없이 비행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족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였죠. 당시에 태어난 우리 딸에게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T-50은 어떤 항공기인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찬조 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와 함께 한 보물 같은 가족'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50의 탄생, 아이들의 출산과 성장 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한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아울러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보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항공우주를 전공했지만 이론과 현장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행시험이라는 특이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비행시험 기술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T-50의 성공적인 개발 비행시험과 이후 개발 과제의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선진 항공사 수준에 버금가는 비행시험 기술을 확보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일 팀장 T-50은 록히드마틴과 공동 개발된 최초 국산 초음속기입니다. T-50 체계개발의 최초 계획은 1989년에 수립되었습니다. 1990년에 KFP사업의 절충교육으로 탐색개발 착수 및 1997년 체계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01년 10월 시제기 Roll Out, 2005년 10월 양산 착수되었습니다.

김창길 부장 한마디로 'KAI인의 열정과 희망으로 만든 꿈의 초음속 항공기'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T-50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낸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김찬조 팀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T-50 개발로 無에서 有를 만들어가며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버금가는 항공 기 개발 절차가 구축된 상태입니다. KF-X 및 LAH/LCH 등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진행 중인 만큼, 선배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들이 열정과 패기를 갖고 노력한다면 다음 주인공은 우리 후배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김창길 부장 T-50 개발의 축적된 기술을 KF-X에 잘 접목하여 성공적인 KF-X가 탄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후배들이 정직한 마음과 전문 지식으로 실수 없이 더 멋지게 비상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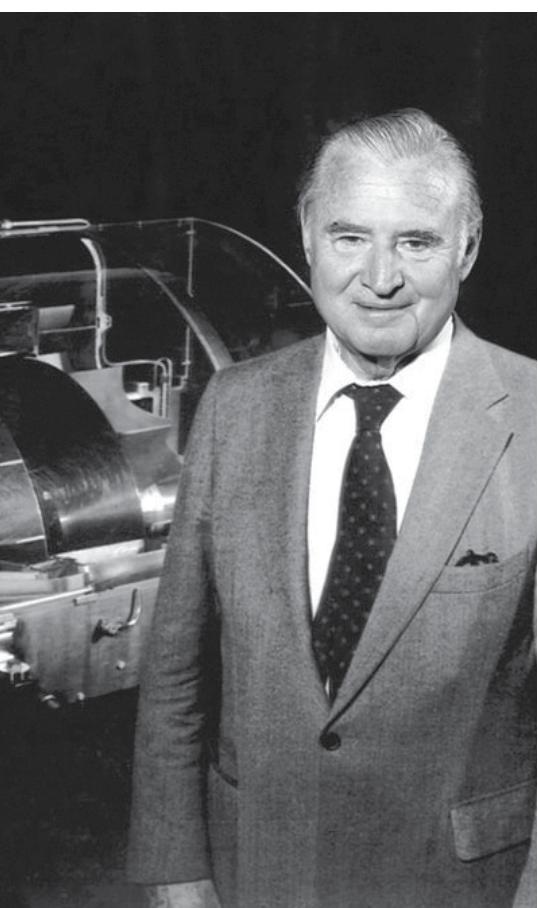
조정일 팀장 T-50 이후 KUH의 개발도 수행되었고, LAH/LCH 및 KF-X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개발은 여러 우관부서 와의 조화와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만 계획된 일정과 비용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는 확실히 수행하되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발사업에 임한다면, 평생 자랑과 추억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제트엔진 개발의 선구자 한스 폰 오하인¹⁾

(1911. 12. 14. ~ 1998. 3. 13.)

역사 속 항공인의 세 번째 주인공은 세계 최초의 실용 제트엔진 HeS 3²⁾ 개발한 독일의 엔지니어 한스 폰 오하인(Hans von Ohain)입니다.

글 조문곤 항공전문기자



He 178

Q.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개인적 측면에서든, 항공역사 측면에서든 제트엔진을 장착하고 비행에 성공한 인류 최초의 제트기 하잉켈 He 178이 첫 비행에 성공한 1939년 8월 27일은 매우 중요한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He 178은 제가 개발한 HeS 3 터보제트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단, 저를 소개해 주신 사항 중의 하나는 수정해 드려야 할 것 같군요. He 178은 실험기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HeS 3은 세계 최초의 '실용' 제트엔진은 아니지요. 세계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제트엔진이라는 설명이 더 정확할 듯싶습니다.

Q. 비행에 성공했음을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오하인 씨가 개발한 HeS 3보다 시기적으로 더 앞섰던 제트엔진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A. 맞습니다. 일단 엔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제가 가장 먼저 개발한 엔진은 하잉켈에서 1937년에 개발한 HeS 1입니다. 개발 초기 HeS 1은 연소가 용이해서 기술적으로 한 단계 아래였던 수소 가스로 가동시켰어요. 그게 1937년 3월이었습니다. 가솔린을 주입해 가동에 성공한 것은 그 해 9월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다섯 달 전인 1937년 4월 이미 영국에서 영국 공군 장교였던 프랭크 휘틀(Frank Whittle)이 가솔린을 주입한 터보제트엔진 WU의 시운전에 성공했어요. 시기적으로는 다섯 달 차이긴 하지만 휘틀은 이미 그보다 훨씬 앞선 1930년에 원심입축식 터보제트엔진 특허를 냈습니다. 사실 제가 제트엔진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매진하게 된 계기도 휘틀의 특허를 접한 때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HeS 1의 개발에 성공한 이후에는 HeS 1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실제 항공기 장착을 염두에 둔 HeS 3을 개발했죠. HeS 3 역시 설계추력에는 미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개량을 가한 끝에 1939년 초 HeS 3B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엔진이 He 178에 장착돼 세계 최초로 제트엔진 비행에 성공했던 것이죠. 참고로 휘틀이 개발한 제트엔진이 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한 것은 He 178 첫 비행 후 2년 후인 1941년 영국 공군의 미티어 E.28/39 실험기에 의해서였습니다.

Q. 오하인 씨의 연구가 영국 공군 장교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군요.

A. 제 제트엔진 연구에 관해 설명해 드리기 이전에 당시 항공기 제작사였던 하잉켈과의 인연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군요.

저는 괴링턴대학에서 물리학과 항공역학을 전공했습니다. 1930년 휘틀의 특허를 계기로 제 최대 관심사는 '프로펠러 없는 엔진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였죠. 휘틀의 특허연구 보고서를 연구한 뒤 내린 결론은 '이건 특허용 설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항공기에 장착되기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았죠. 이를 잘 보완하면 제대로 된 제트엔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제 모교의 물리학 연구소에서 연구보조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즈음 제 생각을 담은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휘틀의 특허안보다 압축기와 터빈의 간격을 줄이고 직경은 더 크게 만들어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을 둔 것이죠. 제 연구 성과를 눈여겨보신 연구소 소장님이 당시 하잉켈사에서 설계자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1936년 하잉켈에 입사했고 그렇게 하잉켈에서 엔진 개발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제가 개발을 주도하긴 했지만 하잉켈의 모든 엔지니어가 하나 되어 열정적으로 매달렸는데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HeS 3은 빛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Q. 오늘날 제트엔진은 보편화되었습니다. HeS 3 개발 성공 이후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A. HeS 3을 장착한 He 178은 첫 비행 성공 이후 하틀러를 비롯해 나치 수뇌부에 여러 차례 시범비행을 했습니다. 이에 고무된 하틀러는 다임러-벤츠, BMW, 유모(웅커스의 엔진사업부문) 등 엔진 제작사들에 제트엔진 개발을 독려하는 한편 하잉켈을 포함해 메서슈미트, 웅커스 등에 제트엔진을 장착할 항공기 개발 준비를 독려했습니다. 하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반의 준비를 끝내던 시기였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의 국력이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되었어요. 당시 나치 항공성은 국가 차원에서 신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해 풍부한 예산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거기에 하잉켈이 최초로 선정돼 저는 HeS 8(항공성 제식부호 109-001) 개발에 매진했어요. HeS 8뿐만 아니라 BMW의 109-002/109-003, 유모의 109-004

등도 나치 항공성의 신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돼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피스톤엔진이 전장에 지배하던 시기에 제트엔진은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미래의 동력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제트엔진 개발은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었어요. 개발에 몰두한 결과 제가 개발한 2대의 HeS 8이 독일 공군 최초의 제트전투기인 He 280에 장착돼 1941년 3월 30일에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Q. 짧막한 이야기만으로도 오하인 씨의 치열했던 삶이 느껴집니다. 끝으로 사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서 HeS 3 엔진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지적한 논리랑 비슷합니다. Me 262는 세계 최초의 '실용' 제트전투기이고, 세계 최초로 제트엔진을 장착하고 비행에 성공한 전투기는 2대의 HeS 8을 탑재한 He 280입니다. HeS 8을 장착하고 He 280이 첫 비행에 성공했던 1941년 3월 30일은 Me 262의 첫 비행보다도 1년 이상 이른 시점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당시 하틀러가 제트엔진 개발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였는데 충분한 테스트를 할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니 그러한 지시는 사실상 비현실적이었지요. HeS 8뿐만 아니라 당시 개발 중인 모든

제트엔진이 처한 상황은 같았는데 가장 큰 난제는 진동문제였습니다. 총 11대가 제작된 He 280 시제기에 BMW 003, 유모 004도 장착해봤지만 진동문제가 벌목을 잡았어요. 요망하는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1943년 3월 He 280의 개발은 취소됐습니다. 그렇게 1년 뒤 등장한 Me 262에 세계 최초의 실용 제트전투기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고 2년 후 전쟁은 끝이 났죠.

Q. 짧막한 이야기만으로도 오하인 씨의 치열했던 삶이 느껴집니다. 끝으로 사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제트엔진 개발의 선구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재능을 살려 열정을 쏟은 것 이외에도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귀 기울였던 결과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울러 엔진은 저 혼자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잉켈의 엔지니어들과의 팀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의 삶과 이야기가 사우들에게 영감을 줄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착륙 중인 He 280. 연료 누유를 확인하기 위해 엔진 카울링이 제거되어 있다. 실제로 He 280의 첫 비행은 1940년 9월 22일이었는데 그때까지 HeS 8 엔진이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첫 비행은 엔진 없이 다른 항공기에 견인되어 이륙한 후 무동력 활공 테스트로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HeS 8을 장착한 첫 비행은 6개월이나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1) 영문 풀 네임은 Hans Joachim Pabst von Ohain입니다.

2) HeS는 독일어 'Heinkel-Strahltriebwerk'의 약자로 영어로는 Heinkel-jet engine, 즉 하잉켈의 제트엔진을 뜻한다.

Fly News



①

대만, 초음속 훈련기 개발 착수

대만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인 차세대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대만 자유 시보 등이 지난 2월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2020년까지 686억 대만달러(2조 7천 440억 원)를 투입해 차세대 초음속 훈련용 전투기를 개발, 2026년까지 66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작년 4월 '란훼(藍鵲·파란 까치)'로 명명된 차세대 고등훈련기 XT-5의 시안을 공개한 대만은 연구개발에 300여 명을 투입해 늦어도 2019년까지는 차세대 초음속 고등훈련기 시제기를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대만 국방부와 중산과학연구원, 항공기 제작사인 한상(漢翔) 항공 등은 2월 7일에 고등훈련기 개발 착수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참석해 격려했다. 대만은 초음속 훈련기가 개발되면 이를 경공격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 시진핑 주도 미국식 '군산복합체' 만드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민간 및 군사 기술을 접목해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월 23일 시진핑 주석이 중앙군민융합(軍民融合)을 위한 선봉장으로 나섰다면 서 이같이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 1월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치국 내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시진핑 주석이 전담해 이 끝도록 결의했다. 이에 대해 SCMP는 "군민융합 발전위 창설은 중국이 군비를 공격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나온 것으로 민간 부분의 기술과 혁신, 투자, 생산능력을 끌어들여 군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기대가 반영돼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시진핑은 군수산업에서 민간의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강 군 육성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일본, 첫 국산 제트여객기 '상용화의 꿈' 2020년으로 또 연기

일본의 첫 국산 제트여객기 MRJ의 항공사 인도 시기가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 1월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야나가 순이치(宮永俊一)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사장은 이날 자회사인 미쓰비시 항공기가 개발 중인 MRJ의 인도를 기존 2018년에서 2년 더 연장해 2020년 중반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미야나가 사장은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의 어려움을 공부해야만 했다"며 "분석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기는 장비 배치와 배선 등 재검토가 필요 한 기체 설계 변경에 따른 것이다. MRJ의 납기 연기는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또 애초 계획 보다 7년이나 납기가 늦어지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여객기 사업 계획을 밝힌 2008년에 첫 납기를 2013년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기체 디자인, 부품 등에서 문제가 잇따라면서 납기를 계속 늦춰왔다.



④

F-35A, 모의공중전에서 F-16에 15대 1 격추율

한국도 내년부터 도입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실전 투입 자격 확보 이후 첫 모의공중전에서 첨단장비를 갖춘 대항기에 맞서 입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군이 최근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 부근 상공에서 실시한 2017년도 첫 '레드 플래그(Red Flag 2017-1)' 훈련에서 F-35A가 대항기로 나선 F-16 전투기 편대들을 상대로 한 공중전에서 15대 1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 이뤄지는 이 훈련에는 지난해 8월 '초도작전능력(IOC)' 자격을 확보한 13대의 F-35A기가 참가했다. IOC 자격 확보는 실전 투입 태세를 갖췄다는 의미다. 에비에이션 위크, 디펜스 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제388 전투비행단(현역)과 제419 전투비행단(예비역) 소속 F-35A기들은 이 훈련 기간 110여 차례의 출격에서 F-16 전투기 편대들에 맞선 모의공중전서 15대1의 격추율을 보였다.



중국, 스텔스 무인전투기 개발에 미국 긴장

중국이 개발한 첨단 스텔스 무인전투기의 작전 능력과 성능에 미국이 긴장, 예의 주시한다고 중국 참고소식망(参考消息網)이 지난 1월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공공업그룹에서 제조한 '리젠(利劍)' 무인전투기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진보 2등 상을 받은 사실이 미국 매체에 게재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비회원국이 만든 최초의 스텔스 무인전투기로서 중국 장시(江西)성 소재 흥두(洪都)사에서 제조공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으며 2013년 11월 처녀비행에 성공했다.

리젠은 내부에 2개의 폭탄창을 두고 4천 400파운드(약 2t)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엔진은 WS-13Q 터빈엔진을 탑재하며, S자 형태로 공기 흡입구를 설계해 스텔스성을 향상했다. 중국은 작년 2세대 리젠의 비행을 시작했으며 시험비행 결과가 좋으면 오는 2019~2020년 사이 실전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한다.



러시아, 두 번째 5세대 스텔스전투기 개발 중

미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보급형 F-35 라이트닝 II 보유에 대응해 러시아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T-50(PAK FA, 팍파)의 보급형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31일 중국 현지언론 환추왕은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최근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가 미그-35 다기능 전투기 공개 행사에서 "미그 그룹이 팍파의 경량형인 가칭 '라이트 팍파(light PAK FA)'를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수호이사는 T-50 시제기가 시험 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말 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미국은 전 세계에서 F-22와 F-35 두 기종의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며 중국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과 보급형 젠-31 연구 개발로 맞서고 있다.

Fly News

Fly News



⑦

⑧

⑨

DJI 독주 속 몰락하는 드론업체들, “산업용 드론만이 해답”

세계 1위 드론업체인 중국 DJI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면서 DJI 경쟁 업체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실제 북미 최대 드론업체로 손꼽히는 3DR은 취미용 드론 시장에서 칠수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시장을 선도했던 패롯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회사 외에도 세계적인 드론 붐에 힘입어 우후죽순 생겨난 수많은 드론 기업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론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산업용 드론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업계는 올해 드론 시장 규모 9조 원 중 취미용(엔터테인먼트 및 촬영용)과 산업용 드론 시장이 약 2대 3으로 산업용 드론 비중이 클 것이며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 한다. 또한 산업용 드론은 취미용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 비싸 소량 판매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얻을 수 있어서 앞으로 더욱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 날개 길이 40m 태양광 드론 우주공간 운용 연내실험

중국이 연내 우주와 대기권 사이의 공간에 태양광 에너지로 움직이는 대형 무인기(드론) 운용 시험에 착수키로 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2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우주공기동력기술연구원(CAAA)이 날개 길이 40여 m에 이르는 대형 무인기를 비행시키는 실험을 연내 실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태양광 무인기는 초고공 비행이 가능하며, 항속시간이 길고 유지관리가 쉽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중국 측은 소개했다.

중국 국방부는 앞으로 이 태양열 무인기가 공중 조기경보기와 대형 정찰기 역할을 대체하면서 재해감시, 기상관측, 통신중계 등의 임무도 수행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도 18km 이하에서 항공기는 지정 항로만 따라 이동해야 하지만 18km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항로를 벗어나도 돼 군사적 가치가 높아진다. 중국이 개발 중인 태양광 무인기는 보잉 737 여객기보다 큰 40여 m의 날개를 달고 지구상공 20~30km의 성층권에서 시속 150~200km 속도로 순항하게 된다.

GE, 한국항공대와 항공엔진 성능예측 분석기술 공동개발

GE는 지난 2월 9일 한국항공대와 항공엔진 데이터 분석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글로벌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장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GE코리아 강성욱 총괄사장과 한국항공대학교 이강웅 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기술 인재 양성과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GE와 한국항공대는 지난 2016년 12월 '항공기 오프보드 분석기술 개발(Development of Off-Board Analytics Technologies)'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군용 항공기 엔진 성능 예측과 관련된 분석 기술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GE의 핵심 산업인터넷 플랫폼인 프레디스(Predix)를 적용해 국내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항공 데이터 분석 관련 산학협력이다. 연구 결과는 현재 군용 항공기와 더불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24

함께 생각해요
프라이드 발전소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 Pride



26

KAI 톡톡
여러분의 삶에서 자부심을
느꼈던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28

글로벌 스토리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 만족도 99%
라이엇 게임즈



30

KAI 캠페인
자부심을 키우는
6가지 실천법

Section 2 하나 된 KAI

일할 맛 나는 회사,

신나는 일터를 꿈꿉니다.

GWP(Great Work Place) 기업문화로

KAI는 하나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긴 불황에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오늘날의 경제 환경에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해야 살아남는다는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변신과 혁신, 변화와 적응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바꾸어 나가는 가운데서도 꼭 지켜나가야 할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 조직은 조직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가치, 직원들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가치들을 꼭 지켜가야 한다. 그것은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는 최초의 동기이자 최후의 보루이며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글 전미옥 마이스토리 대표

프라이드 발전소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 Pride



영혼이 있는 조직인가

기업은 원가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조직이다. 상품을 팔든 서비스를 팔든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뭐든 문제 될 건 없다. 하지만 다 팔아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업의 '영혼'이다. 기업의 영혼은 곧 경영 철학이다. 우리 기업이 지향하는 바, 혹은 꼭 지켜야 할 가치이다. 이것 [이 지켜질 때](#) 직원들은 이 조직의 구성원인 사실이 자랑스러워지고 더 열정적으로 일할 의욕이 생긴다. 호주의 콘타스항공은 세계에서 3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항공사이지만 진짜 자랑거리는 긴 역사가 아니다. 항공사 평가 사이트 'AirlineRatings.com'이 뽑은 '2013년도 세계의 항공사 안전도 평가'에서 당당히 1위에 빛난다. 콘타스항공의 자존심은 미국 나사(NASA)도 인정할 정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안전제일주의?' 우리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이지만 콘타스항공에선 공허하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1951년 7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한 사건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사망사고가 없는 항공사이기 때문이다.

'Safety before Schedule' 1936년부터 변함없는 고집스럽게 보이는 회사현장이지만, 콘타스항공 조종사들은 "도착하지 않는 것보다 늦더라도 안전한 게 낫다"고 말한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사장이 먼저 챙기고, 관련된 예산은 먼저 신속하게 처리한다. 누군가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다고 한 적이 있었을까? 콘타스항공은 "안전에 드는 비용이 과하다고? 그럼 한번 사고를 내봐"라고 일갈한다. 평화의 비용과 전쟁의 비용처럼, 아무리 안전에 드는 비용이 많다고 해도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기업이 지키고자 하는 경영 철학은 직장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조회 때마다 구호를 외친다고 그게 '영혼'이 되지 않는다. 조직 구성원들에게까지 활력이 되고 영혼이 되려면 좋은 가치인 만큼 위로부터 지켜져야 하며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이 가치를 놓지킨다면 부끄러워야 한다. 그런 자존심이 있는 조직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게 된다.

자존감이 높은 자존심이 있는가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한 부분도 있는 말이지만 조금 다르다. 우선 글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점에선 같다. 하지만 그 존중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자존심이라면 자존감은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이다. 이를테면 이런 퍼스트레이디는 어떤가. 어느 대통령 부부가 주유소에 갔다가 우연히 옛 교동창을 만났다.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보다시피 난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야." "알고 있어, 축하해! 근데 학창시절 내가 데이트 신청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그 당시 우린 둘 다 젊었어." 돌아오는 길에 대통령이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저 친구와 결혼했으면 지금은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겠지?"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바로 저 남자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있을 거야!" 자신은 누구라도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자신감, 자기에 대한 크나큰 신뢰가 없으면 거침없이 하기 어려운 말이다.

상사나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은 중요하다. 자신감을 크게 올려주고 자존심도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남이 아무리 '잘한다', '최고다', '믿을 만하다'하고 말한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감정이 없으면 그 좋은 평가를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신감으로 만들기 힘들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다. 그래야 남들의 평가나 인정에 목말라 하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는다. 좋은 평가나 인정은 그것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늘 어떤 경우라도 내가 나를 긍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밖의 조건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나와 스타일이 다른 상사, 조직의 변화와 혁신 물결, 성과와 평가 등 모두 움직인다. 그 가운데서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하다면 활력이 소진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역량을 업데이트하고 있는가

뉴욕에는 이탈리아계 이민자가 많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 식당의 경우는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지만, 이탈리아계 이민자들만 찾는 변두리 식당에 가면 직원들이 웃지도 않고 때로 불친절하다. 그런데 그런 불친절한 식당의 음식은 유명한 레스토랑보다 훨씬 더 맛있다. 실제 이탈리아인들의 팟속에는 요리는 '서비스'가 아닌 '맛'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고집이 있다. 그래서 무뚝뚝하다 못해 불친절해도 맛만큼은 인정하는 최고의 음식점들이 많다.

요리사는 직장인이든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은 모두 일의 내용으로 승부한다. '이것만은 다른 사람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술이나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더욱 세련되고 노련하게 배우고 익혀 독자적인 역량을 기른다. 이것이 직장생활에 자신감을 가져온다.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전문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경험이 많다고 해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과거의 성공이나 실적에 안주하지도 않아야 한다. 요리사는 잘하는 음식의 맛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메뉴 개발도 해야 한다.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폐기할 것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일의 내용과 업무 자존심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기술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가진 이공계 출신 직장인들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고 그 분야에 대한 성공 욕구도 강하다. 다만 기술이 세분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자기 전문 분야에 몰두한 나머지 그와 비슷한 분야, 연관 있는 분야에 무관심하지 않아야 한다. 활기찬 조직은 조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소통을 계을리하지 않는다. 더 나은 미래 비전을 위해 상하좌우 방향과 관계없이 소통한다면 그 조직은 평균보다 더 좋은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프라이드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KAI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자부심을 느꼈던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우리 회사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수식어 중 하나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사'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의 단어를 당당하게 붙이는 우리의 자부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명백한 사실과 함께 KAI인들이 가진 또 다른 자부심의 순간이 궁금합니다.



형상관리팀 김경희 과장

KAI 입사 순간

저의 자부심은 우리 회사 입사 순간입니다. 입사 당시는 3사가 통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에게 KAI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입사해 조금이나마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보안팀 윤차렬 차장

항공기가 해외로 납품될 때

T-50 등이 해외 납품 등을 위해서 격납고를 떠나는 순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KFX상세해석2팀 김재한 사원

해외여행을 혼자 힘으로 떠날 때

대학생 때 부모님 도움 없이 제힘으로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모 기업에서 모집하는 이벤트를 신청했습니다.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이후 기업에서 자동차를 지원받아 두 달간 유럽여행을 했습니다. 제 다짐을 이뤄낸 그 순간의 뿌듯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GSE개발팀 이대경 수석연구원

타인의 무시가 역전될 때

록히드마틴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가 국내에서 제작한 KF-16 전투기를 두고 "제시간에 제대로 비행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KF-16이 첫 비행을 무사히 마친 순간, 그 엔지니어가 생각나면서 제 인생 최고의 자부심과 짜릿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전 대인의 마음으로 그에게 장을 지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발사업기획팀 김미영 사원

딸이 태어난 순간

사랑하는 두 딸이 태어난 순간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수출계약팀 이원혁 부장

첫 수출 계약이 이뤄졌을 때

2011년 5월 25일, 인도네시아에서 T-50 첫 수출 계약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지금도 그 떨리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후에도 몇 건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날만큼의 감동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첫사랑을 뜻하는 말과 비슷한 느낌일까요? 처음 느낀 그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KAI 톡톡은 GWP 기업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직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매달 웹진(kaiwebzine.com)을 통해 참여해 주세요. 참여자 중 지면에 글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4월호

- 주제 : 강점을 활용하여 역량을 발휘하라, Competence
- 질문 : 당신의 특기는 무엇인가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 만족도 99% 라이엇 게임즈

라이엇 게임즈(Riot Games)의 핵심 가치는 '플레이어 중심'이다. A급 플레이어들을 직원으로 뽑아 충분한 자유와 권한을 제공하고, 그들이 항상 A급을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진출한 나라에 맞게 이익을 환원, 자사의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자부심을 품게 하는 것이 라이엇 게임즈의 차별화된 기업문화다.

글 채희숙 일러스트 레모



한국 플레이어의 자부심 위해 문화재 보호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소재의 헤미티지박물관이 소장했던 조선 시대 희귀 불화 '석가삼존도'가 2014년 1월, 100년의 유랑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1730년대 영조 시절에 제작된 이 대형 불화는 일제강점기 초반 국내 사찰에서 무단으로 뜯겨 일본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박물관과 미술 시장을 전전하다가 1973년 헤미티지박물관에 들어간 뒤에는 둉글게 말려 천장에 매달린 채 40여 년간 보관됐다. 이 문화재의 반환 협상은 글로벌 게임 개발 회사인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가 헤미티지박물관에 3억여 원의 운영기금을 기부함으로써 성사되었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시작, 2016년

까지 5년간 35억 원 이상을 후원했다. 라이엇 게임즈가 한국의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온 이유는 한국의 라이엇 게임즈 플레이어가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진출해 있는 나라에 맞게 이익을 환원, 자사의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자부심을 품게 하는 것이 라이엇 게임즈의 차별화된 기업문화다. 라이엇 게임즈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근무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게임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2015년 13위, 2016년 39위에 올랐

다. 도전, 분위기, 보상, 커뮤니케이션 등 6개 설문 항목에서 모두 90% 이상 만족이 나왔고, 특히 회사의 자부심(Pride) 부문은 직원 9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2006년 설립된 라이엇 게임즈는 미국 LA에 본사가 있고(지분은 중국 텐센트가 100% 보유), 미국 1,600명, 해외 법인 600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2009년 출시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는 25개 언어로 서비스되며 월간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넘는다. 전 세계에서 13개 e스포츠 리그를 운영 중이고, 게임 내 매출만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은 미국 NBA에 버금가는 글로벌 리그가 되어 종계권과 메인 스폰서십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

플레이어 중심 철학의 정점에 직원 있어

게임의 유명세와 달리 라이엇 게임즈는 최고의 연봉을 자랑하거나 '꿈의 직장'으로 꼽히는 구글처럼 수영장 끝린 호화 사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직원들의 자부심이 최고 수준에 이르는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나 생활의 쾌적함에서 비롯되는 휴브리스(Hubris, 오만)적 자부심이 아니다. 라이엇 게임즈 공동창업자인 브랜든 벡과 마크 메릴은 남자주대(USC) 동창생으로, 학창시절 '게임광'으로 유명했다. LA 한인타운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배고파면 순두부찌개를 시켜 먹는 게 낚이었던 두 사람은 교내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열기로 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게임은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농구나 야구는 되는데 왜 게임은 안 되는지 의문이었지만, 졸업 후 벡은 컨설팅 펌, 메릴은 은행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게임에 대한 애정을 버릴 수 없었던 그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뭉쳐 2006년 라이엇 게임즈를 창업했다. 목표는 게임을 스포츠로 인정받게 하는 것, 핵심 가치는 '플레이어 중심(Player-focused)'이었다. 플레이어 중심으로 개발할 때 출룡한 게임이 탄생한다는 신념에 따라 플레이어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매출이나 실적보다 소통을 더욱 중요시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직원을 채용할 때 게임 자체를 재미있어하고, 고정관념에 도전할 줄 아는 인재를 뽑는다. A급 플레이어들을 뽑아 충분한 자유와 권한을 제공하고, 그들이 항상 A급을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직원들의 자부심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플레이어 중심 철학의 정점에 A급 플레이어인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취직했다가 본인이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연봉의 10%(최대 2만 5천 달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플레이어로서의 자부심보다 연봉 등 다른 조건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미련 없이 보내준다는 뜻이다.

사내에는 직급 체계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규율이 없다. 상사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직원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평등한 조건에서 근무한다. 휴가나 병가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휴식이나 재충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휴가를 떠날 수 있다. 본인들이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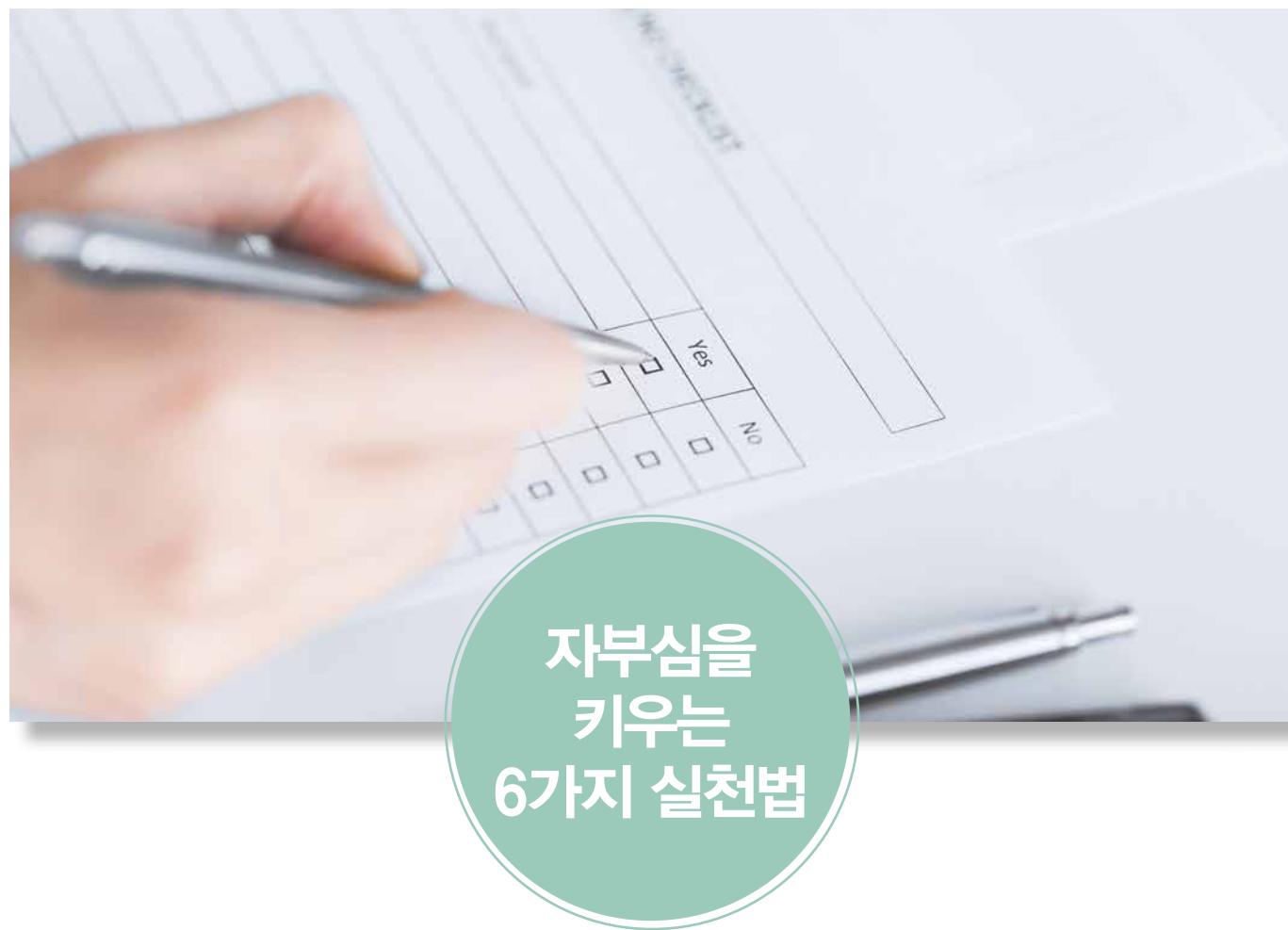
서 업무 스케줄을 짜고 결정권도 본인에게 있으니 회사가 주는 스트레스는 적고 업무에 대한 성취도와 자부심은 높다.

팬들의 요청 따라 스테이플스센터 섭외

대신 누구나 의견을 말하는 토론은 매우 중요시한다. 2015년에 입주한 사옥의 사무동은 200개 이상의 작은 회의실로 나뉘어 있다. 빠른 피드백을 끌어내는 소규모 회의를 언제라도 진행하도록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썬더룸'이라는 마라톤 회의도 자주 열린다. 큰 방에 모여 1박 2일간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직면한 문제나 게이머를 위한 새로운 혁신에 관해 집중토론을 벌인다. 150명 이상이 참여한 토론에서 새로운 서버 설계 등 25가지의 프로젝트를 탄생시킨 사례도 있다.

LoL은 직원들의 회사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내에 설치된 라이엇 PC방은 이용자의 플레이 성향 등을 파악하는 데 쓰이고, 직원들 간의 대회인 LoL 럼블(Rumble)이 열리기도 한다. LoL 채팅 로그를 인사평가 자료로 사용한 일도 있다. 비매너 행위가 과하다고 평가된 직원 30명을 찾아내 개인면담을 진행, 매너 플레이를 약속하지 않은 직원은 해고했다. 게임에서 비매너 행위가 심한 사람은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A급 플레이어의 자질에는 매너가 필수임을 분명히 밝힌 이 조치는 고객의 자부심을 배려한 것이기도 했다. 라이엇 게임즈의 고객센터는 게임과 상관없는 문의와 상담에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답변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치 종독자(addict), 게임 쓰레기(junky), e스포츠 동경자(wannabe)로 불리던 벡과 메릴은 2013년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장 'LA 스테이플스센터'에서 롤드컵 결승전을 치렀다.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내 게임대회를 거부당한 지 15년 만의 일이었고, LoL 팬들이 스테이플스센터 섭외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작은 일부터
이뤄내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남과 나를
좋아하고 존중하기



나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기



32

사회공헌
이웃의, 이웃에 의한,
이웃을 위한,
함께 걷는 나눔봉사단



36

KAI 패밀리
도란도란 말하며
사알사알 걷는다



40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낚는 맛, 먹는 맛, 즐기는 맛
바로 이 '맛' 아닙니까!



42

나의 여행 이야기
바다 품은 섬에서의
하룻밤,
부자의 백팩킹



46

세대공감 KAI
달콤 쌈싸름한
미팅의 추억



49

이야기 한마당
경영목표 달성을
다짐하다!

Section 3 행복한 KAI

가족은 물론 동료와 이웃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더 행복한 KAI가 되기 위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웃의, 이웃에 의한, 이웃을 위한, 함께 걷는 나눔봉사단

사회공헌 ①

유쾌 상쾌 통쾌한, 힐링 음악회

자신의 끼를 남들과 나누는 재능분과. 이들이 지난 2월 11일 사천시 사회복지법인 합심원에서 문화공연 봉사활동으로 '힐링 음악회'를 열었다. '즐거운 오후 문화 한마당'을 주제로 열린 음악회는 나눔봉사단의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며 이웃과 함께 웃고 떠드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2016년 창단 이래 나눔봉사단은 매달 빼곡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멘토링 가정방문, 학교 후원품 전달, 중·고등학교 졸업식 참석, 장수사진 촬영, 사랑의 뺨·칼국수 봉사, 힐링 음악회, 아동센터 영화관람 등 그 영역도 다양하다. 보여주기식 후원이 아닌 적재적소 후원으로 이웃들에게 인기가 높다. 2월에도 재능분과, 장학분과, 봉사분과에서는 주변 이웃을 도와 이웃자곳에 따스함을 전파했다.

글 이효정 사진 김태환, 정우철

즐거움이 올라간다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인 12시부터 푸른 조끼를 걸친 나눔봉사단원들은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정장 차림으로 한껏 멋을 낸 생산지원직 강성곤 사우가 합심원 가족들에게 음악회 시작을 알렸다. 자리에 앉은 100여 명의 합심원 가족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 기 시작했다. 음악회는 나눔봉사단이 마련한 난타, 색소폰 연주, 제기차기, 노래 공연 외에도 합심원 가족들이 함께 즐기도록 전국노래자랑처럼 꾸며졌다.

사외 조직인 '동기야'와 우리 회사의 풍물동호회 '민예'가 장구, 북, 팽과리, 징을 치며 '2017년 새해 길놀이'로 분위기를 돋웠다. 합심원 가족들은 노래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공연을 즐겼고, 장구 소리가 커질 때마다 박수로 화답했다. "얼씨구~" "좋~다" 소리가 퍼지니 흥겨움도 더해졌다. 이후 동기야 팀 4명은 손을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며 쿵쾅거리는 소리를 만들어 객석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엇박자의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렴 어떤가. 이토록 즐거운 시간인 것을. 앞·뒤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박자를 맞추는 사람까지 흥에 흥이 더해졌다.

민예가 선보인 사물놀이가 끝난 후에 진주 색소폰동호회의 박준수 씨가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와 '울어라, 열풍아'를 연주해 갈채가 쏟아졌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합심원 식구들은 자신의 노래 솜씨를 뽐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는 삼각지' 등 12명의 합심원 식구는 춤과 노래로 음악회를 함께 즐겼다. 나눔봉사단과 합심원 가족 간의 제기차기 시합도 열려 웃음꽃이 피어났다. 특히, 한국연예예술협회 사천지부 이연 가수가 노래할 때는 모두 앞으로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함께 어울렸다.



올해 역시 따뜻하네

공연 외에도 1월과 2월에 생일을 맞은 합심원 가족들의 피티가 더해져 기쁨은 배가됐다. 생일을 맞은 사람들들을 위한 케이크와 선물도 준비되었고, 생일 축하를 알리는 폭죽이 터지면서 촛불을 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득히 번졌다. 합심원의 강해준 원장은 "1

월과 2월에 생일을 맞이한 모든 가족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면서 2017년 처음으로 열린 생일 파티입니다. 이 자리에 KAI 나눔봉사단이 함께해 더 뜻깊습니다"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생산지원직 채종준 사우는 "합심원에 재능 기부를 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번 풀뿌리봉사를 다들 즐거워하니 저 역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누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강성곤 사우는 "나눔봉사단원의 재능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해 즐거웠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신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행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리 회사의 더 많은 직원이 나눔을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합심원 원장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족한 물품이나 장비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원 가족들은 다른 회사에서 하는 행사를 좋아합니다. 그동안 물적·인적 지원을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쁨과 나눔을 더하다

이 같은 관람지원은 매년 상·하반기에 문화후원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2017년 상반기 행사에는 청대지역아동센터 청대공부방, 두레공부방, 하늘바라기공부방, 방주아동센터 등 9개의 아동센터에서 참가했다. 영화 감상뿐 아니라 맛있는 점심과 팝콘, 음료를 제공해 아이들의 행복이 배가된 행사였다. 이날 이후에도 언제든지 영화 관람이 가능한 180매의 표를 별도로 선물받은 아이들과 선생님의 표정이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

“이 고마움을 고맙다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네요.”

청대지역아동센터 청대공부방 김동현 시설장

아이들은 문화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KAI에서 이런 혜택을 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아이들은 나눔을 배워갑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야지.’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고맙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

나눔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눔봉사단은 아이들의 건강과 공부를 위해 매월 12개 아동센터에 프로그램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지원은 벌써 아동센터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후원을 받은 적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자신이 받은 나눔을 되돌려 주려고 한다는 것이 아동센터의 설명이다. 기쁨은 기쁨을 낳고, 나눔은 나눔을 낳는다고 했던가. 후원을 받은 아이들이나 후원을 선사한 나눔봉사단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 쌓여가고 있다.

사회공헌 ②

웃음 가득한 영화 관람



2월 24일 사천시의 메가박스에 아이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나눔봉사단이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영화 관람을 문화후원으로 지원한 행사때문이다. 참석한 250여 명의 아이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영화를 관람하면서 웃음을 가득 피웠다.

싱글벙글 웃음이 터지다

하나둘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조용했던 영화관은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악자지껄하게 떠들던 아이들은 나눔봉사단 사무국장 구관혁 실장과 사회공헌팀 박경우 차장이 나눠주는 팝콘과 음료를 받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 줄을 선 아이들은 팝콘과 콜라를 보며 손뼉을 치기도 하고 넋을 놓은 듯 처다도 봤다. 한 손에는 음료를, 또 다른 한 손에는 팝콘을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짓던 아이들. 빨갛게 상기된 얼굴을 한 아이는 양손 가득 팝콘과 음료를 들고 우리 사우들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팝콘이 맛있느냐는 물음에 해맑게 “네”라고 답하는 아이가 “여기 오신 분들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봐서 아주 좋아요. 고마워요”라며 배시시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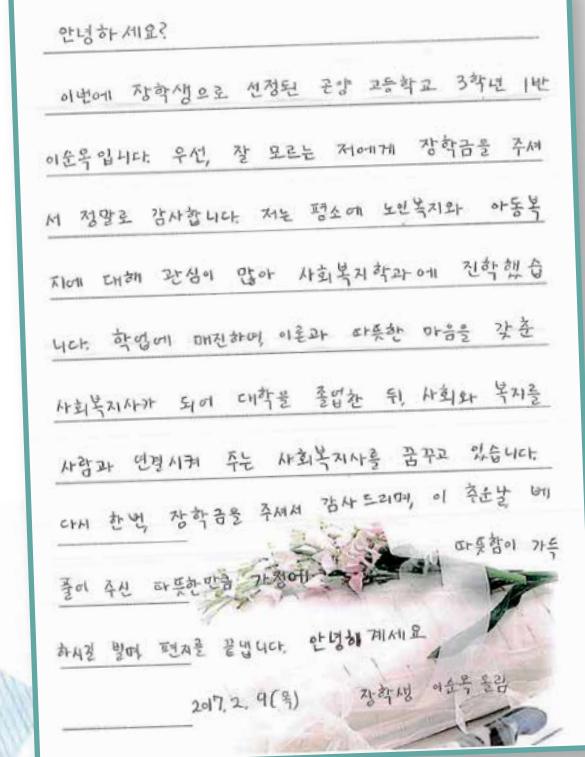


관람할 영화는 ‘그레이트 월’과 ‘그래, 가족’. 웃음기 가득 머금은 250여 명의 아이는 영화관의 3관과 5관으로 차례로 입장했다. 관람에 앞서 구관혁 실장의 “반갑습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간단한 인사가 끝나자마자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영화가 상영됐다.

사회공헌 ③

진심 가득 담은 손 편지

나눔봉사단 앞으로 반기운 편지가 도착했다. 요즘 보기 드문 손글씨로 적힌 편지 속에는 어린 학생이 우리 회사에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편지의 주인공은 졸업을 맞아 장학 물품을 전달받은 곤양고등학교의 이순옥 학생이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가 한 달 일찍 다가온 봄기운을 머금고 따스해졌다. 체험 당일은 새벽녘에 내린 비로 조금 쌀쌀했지만 체험을 나선 수출계약팀의 이원혁 부장과 딸 혜연이, 아들 우진이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그들은 체험 시간 내내 씩씩하고 진지하게 체험에 임했다.

글 이효정 사진 정우철

수출계약팀 이원혁 부장 가족의
통영 편백숲 맨발 체험

도란도란 말하며 사알사알 걷는다

좋구나, 함께한 시간이

동피랑 벽화 마을, 소매물도, 충무김밥, 꿀빵. 나열되는 단어로 쉬이 연상되는 장소는 경남 통영. 너무 유명한 편에 다른 장소는 포켓몬 GO의 희귀템을 찾듯이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한다. 이번 체험 장소인 나폴리농원도 그런 곳 중 하나였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편백이 무성한 이곳은 자연의 혜택을 느끼기에 좋은 장소였다. ‘KAI 패밀리’를 체험할 사람들은 중2 우진이, 고2 혜연이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은 수출계약팀 이원혁 부장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체험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찌나 걱정했건만 그들은 밝은 얼굴로 진지하게 모든 체험에 임했다.

시작은 맨발로 편백숲 걷기. 새벽녘에 내린 비로 편백 톱밥이 깔린 땅은 촉촉하게 젖었지만 발에 닿는 기분은 제법 좋았다. 맨발로 숲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세 사람. 처음에는 신발은 신고 걷겠다던 혜연이가 모든 사람이 맨발로 걷자 슬며시 신발을 벗었다.

“아이, 빌 시려요. 아빠, 발바닥이 너무 차가워

요.” 우진이는 까치발을 들고 총총거리며 물에 젖은 숲길을 뛰듯이 걸었다. 푹신푹신한 톱밥 길을 걷던 이원혁 부장은 걷는 내내 아이들의 손을 잡거나 다정한 말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없이 이렇게 세 명만 나와 보기는 처음입니다. 평소에 아내가 아이들을 많이 챙겼고 우진이와 혜연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산바람을 맞으면서 맨발로 걸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10여 분을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걷던 세 사람은 이끼 관찰 장소에 도착했다. 확대경을 들고 이끼를 관찰하던 우진이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보는 것과 확대경으로 보는 게 똑같은데요”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열심히 확대경을 들여다보는 혜연이 역시 잘 모르겠다고 하니 이원혁 부장이 아이들에게 확대경을 건네받고 이끼를 관찰했다. “확대경이 볼록렌즈라 크게 보여. 더 자세히 봐 봐”라는 아빠의 말에 우진이는 확대경 속을 관찰한 후 이전과 똑같ا며 다시금 길을 걸었다. 숲길 중에 나온 잔디밭에서 잠시 하늘을 보기 위해 눕기도 했고, 나무 수액이 흐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청진기 체험도 마무리한 가족들은 차가워진 발을 데우기 위해 서둘러 족욕실로 이동했다.

“따뜻해요.” “발이 따끔따끔해요.” 아이들은 따



Time for relax



뜻한 물속에서 다리를 녹이며 잠시 쉬는 동안 체험장에 마련된 종이에 자신의 소망을 적기 시작하였다. ‘이우진 웠다 감’이라고 시원하게 쓰는 우진이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쓴 이원혁 부장의 글을 보며 “아빠는 늘 이런 말만 써”라면 핀잔 아닌 핀잔을 줬다. 옆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던 혜연이는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는 소망을 조심히 적었다. 각자의 성격에 맞게 작성된 소망들은 이곳에 남아 그들의 추억을 대신할 것이다.

괜찮아, 도전이야

잠시 발을 녹인 그들은 다음 체험인 편백 비누 만들기에 돌입했다. 비누를 만들어 본 적 없는 그들은 강사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습진이나 여드름 피부, 모낭염에 좋은 편백 가루와 비누 베이스를 섞는 그들의 손동작 역시 진지했다. 우진이는 킁킁거리며 편백 가루의 향을 맡더니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신기해했다.

체험하는 그들의 손이 바빠지면서 말수도 줄어들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탓일까. 만드는 속도와 비누 모양도 제각기 달랐다. 엄마를 닮아 손재주가 있는 혜연이는 비누를 하트로 만든 후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니셜을 새겨 넣었다. 곧 그 연예인의 생일이라 비누를 선물하고 싶다며 뻥끗 웃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원혁 부장은 ‘아빠의 생일은 알고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며 내심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사각형 모양을 만들던 우진이는 기루가 잘 뭉쳐지지 않아 돌연 스테이크 형태로 변경했다. 스테이크의 결을 잘 살리기 위해 선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그려나갔다. 원형으로 만든 이원혁 부장의 비누를 보고 아이들은 “아빠는 손재주가 없어요”라며 웃어 버렸다.

자신들이 만든 비누를 보며 뿌듯한 표정을 짓는 그들은 서둘러 손을 씻고 다음 체험을 준비했다. 마지막 체험은 커피 핸드드립. 커피를 직접 내리는 일이 신기한 두 아이는 강사의 말에 따라 드리퍼에 물을 내렸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움직이는 그들의 얼굴은 전문 바리스타 못지않게 신중했다. 이원혁 부장 역시 아이들과 같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렸다. 물 내리는 속도와 시간에 따라 카페인 정도가 다르다는 강사의 설명에 세 사람 모두 자신이 원하는 카페인 정도를 맞추기 위해 물내리는 속도를 달리했다. 우진이는 내려진 커피를 보고 ‘간장 같다’고 말해 주변 사람을 웃게 하였다. 커피를 마시던 혜연이는 너무 쓰다며 시럽을 한가득 넣고 그제야 만족스러운 얼굴을 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주말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저도 그런 제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로 아이들에게 기억되길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가장 좋았던 체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두의 대답이 달랐다. 우진이는 커피 핸드드립 체험이, 혜연이는 편백 비누 만들기가, 이원혁 부장은 맨발 체험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 그 대답도 달랐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어떤 가족보다 강해 보였다.

“아빠는 100점짜리예요.” 우진이가 얼마 전 KAI 홈페이지에서 아빠의 이름을 보고 ‘아빠는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살짝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혜연이는 평소 아빠와 가야 할 일이 많은 그들의 앞날에 아버지와 함께 한 지금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



통영 나폴리농원 맨발 체험
편백이 무성한 나폴리농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통영의 미륵도에 있는 농원이다. 사계절 내내 자연이 주는 혜택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으로 지정된 이곳은 아토피, 비염, 새집증후군 등에 이로운 푸른치즈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편백숲 맨발 걷기뿐 아니라 편백 비누 만들기, 나무 곤충 만들기, 핸드드립, 편백 화분 만들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륵산길 152
● www.naporyair.com
● 055-641-7005
● 10:00~18:00
● 맨발 체험 5,500원, 핸드드립 11,000원, 편백 비누 만들기 11,000원

KAI 바다낚시 동호회

낚는 맛, 먹는 맛, 즐기는 맛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바다 앞에 서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인다. 아직 봄을 맞이하기에는 이른 때라 추위는 절정이다. 추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단단히 무장하고 배에 오르는 사람들. KAI 바다낚시 동호회의 강태공들이 말하는 바다낚시의 참맛이란, 들으면 들을수록 참 궁금해지는 맛이었다.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바다에서 '낚는 맛'

1999년도부터 이어져 온 KAI 바다낚시 동호회. 이름도 담백하다. 전체 회원은 약 150여 명 정도 되고 정회원은 83명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이끌어온 동호회이기에 동호회에 대한 애착도, 바다낚시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저희 동호회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해요. 낚시를 좋아해도 뱃멀미를 하면 고생하거든요.” 바다낚시 동호회 회장 구조조립생팀 우경찬 전문기술원이 동호회를 소개했다. 올해 처음으로 바다낚시를 떠나는 그들은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에 모닥불을 켜놓고 시조회를 지냈다. 시조(始釣)란, 얼음이 녹은 뒤에 처음으로 하는 낚시질이다. 시조회는 해마다 처음 하는 낚시에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제를 올리는 것이다. “낚시에 흥미도 있어야 하지만 최우선은 안전이에요, 안전. 등산하는 사람들이 시산제를 지내듯, 저희는 시조회를 지내고 바다로 떠난답니다.” 회원들은 시조회를 마치고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배를 채운 뒤 본격적으로 바다로 떠날 준비를 했다.



선상 위에서 '먹는 맛'

푸른 바다를 보며, 직접 낚아 올린 고기를 먹는 기분은 어떨까.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들은 낚시가 끝나면 그날 잡은 조과물을 모아 뒤풀이를 한다고 한다. 바다로 한번 낚시를 떠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한두끼 정도는 선상에서 해결하기 일쑤라고. “저희는 보통 바다낚시가 끝나면 그날 잡아 올린 고기를 모아서 뒤풀이해요. 회를 뜨고, 삶고, 구워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죠.” LRU 품질팀 박한배 수석기술원의 말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군침이 맴돌았다. “기회가 된다면 꼭 먹어보세요. 돈은 회를 떠서, 불락은 구워서 먹으면 맛이 최고거든요.” KAI의 베테랑 강태공들이 직접 낚아 먹어본 그 맛이 궁금해서라도 바다낚시 동호회의 문을 두드리는 회원들이 좀 더 늘지 않을까.

함께 '즐기는 맛'

바다낚시 동호회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기를 낚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고기를 낚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 직급을 떠나 축하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바다낚시를 즐기는 데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었다. “낚시하면서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낚시를 즐기는 것 그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낚시를 나가면 어떤 고기를 낚을지 모르거든요. 그런 기대를 하고 미끼를 던져 고기를 낚을 때까지 기다리며 동료가 고기를 먼저 잡았을 때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낚시의 참 묘미가 아닐까요. 느껴본 사람만이 바다낚시의 참맛을 알 거예요.” 동호회가 생긴 후부터 쭉 동료들과 바다낚시를 함께하고 있다는 회전의 품질팀 이중식 수석기술원의 말을 들으니 바다낚시는 직접 해 봐야 그가 말하는 ‘맛’을 직접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맛을 직접 느껴본 사람들, 그들이 함께 즐기며 어울리는 이곳이 바로 KAI 바다낚시 동호회다.

KAI 바다낚시 동호회

설립연도 : 1999년
인원 : 약 150여 명
모임 : 매월 1회 정기 낚시
활동 내용 : 남해 동부와 여수 등지에서 바다낚시

비행시험팀 김봉호 선임연구원이
추천하는 매물도 백패킹 여행기

바다 품은 섬에서의 하룻밤, 부자의 백패킹

2년 전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통영의 매물도로 1박 2일
백팩킹(Backpacking)을 떠났습니다. 두 남자가 처음으로 떠난
여행이라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여행으로 떠난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의 매물도는 우리나라 1%의 비경이라 불리우는 만큼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군마의 형상을 한 절해고도(絕海孤島)
매물도와 썰물 때만 열리는 50m 길이의 열목개 자갈길로
연결된 소매물도를 KAI가족들에게 소개합니다.

글 비행시험팀 김봉호 선임연구원



남해 백패킹의 시작은 아들 덕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섬에서 등산이라니요. 시작은 아들 덕분입니다. 예전에 아들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오른 남해 야산에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남해의 비경을 보았습니다. 눈에 다 담기도 벅찬 풍경을 뒤로 하고 오는 내내 아쉬움이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산 정상에서 캠핑하면 오롯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90ℓ 대형 배낭에 텐트와 침낭 등을 챙겨 1박 2일 백패킹을 하려 아들과 함께 통영의 소매물도로 떠났습니다.



- ① 수시로 일기예보 확인
- ② 밤에 추위 대비
- ③ 자신의 속도로 자연을 즐기기
- ④ 불 사용 자제
- ⑤ 자신이 만든 쓰레기 반드시 다시 쟁겨가기
- ⑥ 배낭은 여유 있게
- ⑦ 무리한 짐은 금물

가방 가득 설렘 담아

매물도는 통영에서 동남쪽으로 약 26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입니다. 대매물도, 소매물도, 등대섬 3개를 통칭해 매물도라고 부르지요. 이곳은 중국 진시황제의 명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가던 서불이 아름다움에 반해 ‘서불과자(徐市過此:서불이 이곳을 지나가다)’라는 글귀를 남길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런 매물도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자 백팩킹은 대매물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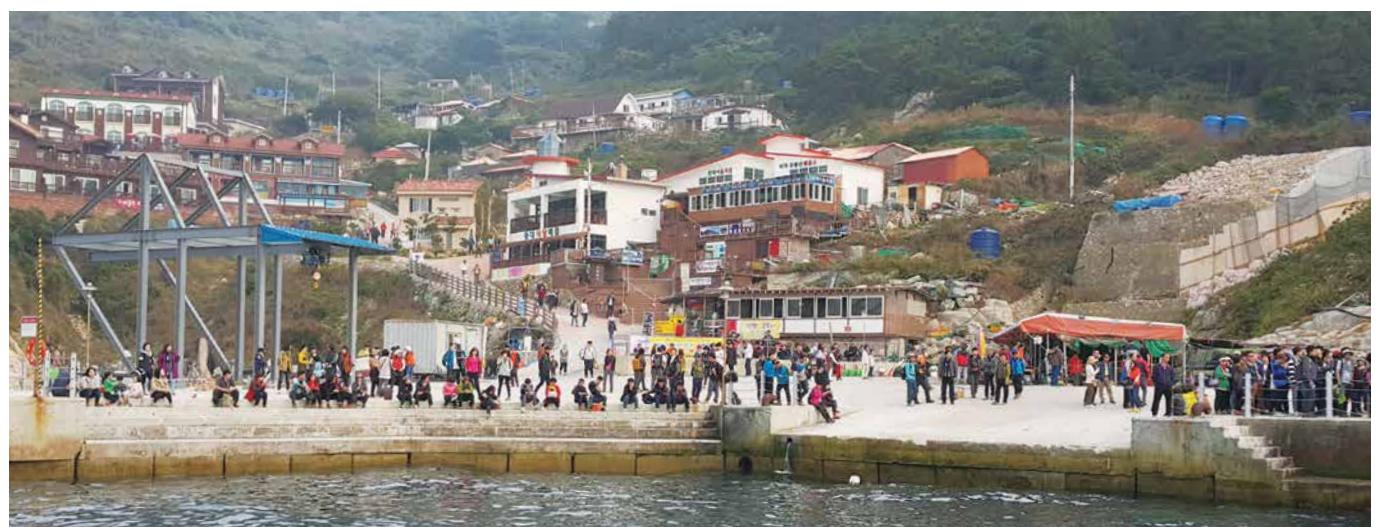
먼저, 백팩킹의 첫날은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의 저구항에서 마지막 배를 타고 대매물도 대항마을로 이동한 후, 고들개에서 일몰을 감상하고, 장군봉에서 아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일출을 감상하고 당금마을 선착장에서 소매물도로 배를 타고 이동한 후 소매물도 트래킹, 열목개 자갈길 걷기, 등대섬 트래킹을 계획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둘만 떠나는 첫 여행의 설렘은 대형 배낭에 가득 담은 물건의 양만큼이나 컸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은 무뚝뚝한 아빠와 까칠한 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생각하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여행 첫날, 오후 1시 30분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담고 사천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날의 생각처럼 저와 아들은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으며, 아빠와 아들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으니까요. 오후 3시에 저구항에 도착해 배낭을 메어보니 생각보다 무거워 덜컥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장군봉까지 어떻게 갈지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언제나 강하고 멋진 아빠로 남고 싶기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자는 저구항에서 30분 정도 배를 타고 도착하는 대매물도 대항마을에 무사히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대매물도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 1,406㎢
- 대항마을, 당금마을
- ▲ 한산초등학교 매물도
분교 폐교 아영장(인 10,000원)



즐비한 편선과 인파를 보니, 대매물도가 소박한 섬마을이라는 예상이 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마을을 벗어나니 인파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고들개로 가는 내내 아름다운 석양과 남해가 멋지게 어우러져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야영을 하기로 한 장군봉으로 가는 동안 점점 어두워지고 아들은 힘이 드는지 점점 걷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장군봉 야영을 포기하고 등대섬 전망대에서 야영하려 했지만 야영데크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해 어둠을 뚫고 장군봉까지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불빛 하나만 의지한 채 걷는 우리 부자는 겨우 장군봉에 다다랐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에 배낭의 무게가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야영장에는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여행객이 있었는데 혼자 온 여성었습니다. 그 여성은 진정한 백패커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가족

도착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어둠이 더 깊어지기 전에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텐트, 매트, 침낭을 서둘러 설치하고 아내가 마련해준 백팩킹용 김치찌개와 밥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매물도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위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술 파티, 아들은 과자 파티로 말이죠.

평소 집에서는 각자 할 일이 있어 바쁘다면 대화가 없었습니다. 매물도의 긴밤 동안 아들과 평소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니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처럼 빛나는 별을 본 적이 없어 아들과 저는 별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다음날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피곤한 탓인지 눕자마자 잠에 빠졌습니다. 자는 도중에 얼굴로 물이 떨어져 일어나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섬의 거친 바람에 텐트가 흔들렸고 텐트 내부 결로로 생긴 물이었습니다. 급히 텐트를 다른 위치로 옮긴 후에야 다시 잠을 청할 수 있었네요.

일출을 보기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따뜻하게 커피를 한 잔 만들어 옆 텐트의 여성에게 권했습니다. 여성은 “남자 혼자 온 줄 알고 무서웠는데 아이가 있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시 40분에 드디어 해가 떠올랐습니다. 일출을 보라고 아들을 흔들어 깨웠더니 계속 잔다며 잠투정을 하였습니다. 어찌나 제 어릴 적과 똑같던지요.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우리 부자는 친란한 매물도의 일출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10분간 기념 촬영을 한 후 아들은 다시 잠에 빠지고 전 훤자 주변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아쉬움을 남긴 채

아침을 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한 후 가져온 쓰레기와 근처 떨어진 쓰레기까지 말끔하게 치우고 하산 준비를 했습니다.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배낭이 가벼워져서겠지요. 2시간 만에 당금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소매물도 트래킹을 위해 배를 타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파도가 높아 오전에만 배를 운항한다며 섬에 있는 여행객들은 모두 육지로 피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매물도와 등대섬 트래킹, 열목개 자갈길 걷기 등 이튿날의 모든 계획을 접고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엄청난 높이의 파도에 배가 뒤집힐 듯 움직였습니다. 무서움이 몰려와 ‘그냥 매물도에 계속 있을걸’이란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일정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소화하지 못했지만 아들과 함께한 첫 여행의 추억은 잊히지 않습니다. 언제 또다시 아들과 여행을 떠나볼까요? KAI 사우들도 가족들과 함께 백패킹을 떠나보기를 권해봅니다. 집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소매물도

- ▣ 경남 통영시 한신면 매죽리
- ▣ 2.51km²
- ▣ 본섬과 등대섬
- ▣ 야영 금지, 민박집 예약 필수

매물도 여행 정보



▶ 통영여객선터미널 → 매물도(시간 30분 소요)

출발지	시간			비고
통영	7:00	11:00	14:30	
당금마을	8:40	12:45	16:00	
대항마을	8:30	12:35	16:10	
소매물도	8:15	12:20	16:15	한 솔 해 운 055-645-3717 왕복 요금 32,700원(종고10%, 경로20%, 소아50% 할인)

▶ 거제도 저구항 → 매물도(30분 소요)

출발지	시간			비고
저구항	8:30	11:00	13:30	15:30
당금마을	9:00	11:30	14:00	16:20
대항마을	9:08	11:38	14:08	16:15
소매물도	9:20	11:50	14:20	16:10 매물도해운 055-633-0051 왕복 요금 21,600원(종고10%, 경로20%, 소아50% 할인)

※ 왕복 요금 및 운항 시간, 차량유류비를 고려하여 저구항 출항 추천
※ 마지막 배를 놓친 경우는 저구항 인근 낚싯배를 통해 매물도 진입 가능
※ 소매물도와 등대섬 열목개 자갈길이 열리는 시간 확인은 ‘마을수록 매물도(www.maemuldo.go.kr)’에서
※ 배를 타기 전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대매물도 해풀길

- 거리 5.2km
- 시간 약 3시간
- 코스 당금마을 → 분교 → 정자 → 갈림길 쉼터 → 장군봉 → 고들개 → 대항마을 → 당금마을

※ 한려해상 바다백리길 코스 중 하나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www.knps.or.kr) 참고

소매물도 등대길

- 거리 3.1km
- 시간 약 2시간
- 코스 소매물도 선착장 → 남매바위 → 소매물도 분교 → 망태봉 → 열목개 → 등대

달콤 쌈싸름한 미팅의 추억

글 정영아 일러스트 이보라



소년, 소녀를 만나다

사골에서 4대가 함께 사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남자 친구는커녕 아는 ‘교회오빠’나 ‘성당오빠’도 없었습니다. 이성에 일찍 눈을 뜯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시내 남학교 학생들과 미팅을 한 이야기를 자랑하곤 했지요. 하지만 제겐 늘 먼 얘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게도 마침내 이성을 만날 계기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누구의 주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근 남학교 같은 반과 단체 편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학생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편지를 해왔던 저는 편지 막 미팅이었습니다. 당시 1학년 새내기들은 대학 축제가 있는 5월 전에 연례행사처럼 쌍쌍파티(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를 했습니다. 부대표를 중심으로 행사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교수님과 선배들을 정식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들은 각자 파티를 함께할 파트너를 데려

얼굴을 보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제 인생의 첫 미팅 상대는 그 친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친구와의 인연은 대학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다니는 학교의 지역이 달라서 가끔 보는 게 다였지만, 방학이 되면 어김없이 만나서 일상을 공유했고, 언젠가는 미팅을 주선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와 오래 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성보다는 친구의 느낌이 강했기 때문일 겁니다.

스무 살의 특권

공식적인 첫 미팅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미팅이 저의 공식적인 첫 미팅이자 마지막 미팅이었습니다. 당시 1학년 새내기들은 대학 만남도 꽤 유행했습니다. ‘스카이라브’와 ‘세이클럽’이 대표적이었죠. 우연히 대화를 잇다가 인근에 사는 것을 연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혼자 나가기가 쑥스러워서 2대 2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 동갑내기 외사촌을 데리고 나갔지요. 한데 인연은 따로 있는 건지, 몇 년 뒤 외사촌은 그때 만

와야 했습니다. 아마 축제에 데려온 남자친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주선으로 인근 학교 남학생들과 4대 4로 미팅을 했습니다. 당시 미팅에서는 각자 소자품을 내고 고르거나, 좀 더 적극적인 자리에서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사랑의 스튜디오> 영향으로 ‘사랑의 작대기’가 대세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커플이 탄생하기는 했지만 미팅은 그냥 미팅일 뿐이었습니다. 이성이 단체로 만나서 맥주를 마시며 몇 시간 즐거운 수다를 떠는 정도였다고 할까요. 대학 시절의 미팅은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 당시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만남도 꽤 유행했습니다. ‘스카이라브’와 ‘세이클럽’이 대표적이었죠. 우연히 대화를 잇다가 인근에 사는 것을 연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혼자 나가기가 쑥스러워서 2대 2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 동갑내기 외사촌을 데리고 나갔지요. 한데 인연은 따로 있는 건지, 몇 년 뒤 외사촌은 그때 만

난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숙모는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미팅

어떤 시대든 사랑이, 연애 감정이 없을까요. 전쟁통에도 사랑은 싹튼다고 했습니다. 추억을 주제로 한 어느 기고문에서 60년대 미팅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60~70년대 새 학기의 시작은 대학 가에 미팅의 계절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기사의 도입부에 괜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또 ‘4·19 혁명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구별하는 방법의 하나로 “미팅을 해봤느냐, 아니냐”가 얘기가 될 정도로 60년대 중반은 미팅의 부흥기였습니다. 또한 과대표의 능력으로 미팅 주선 능력이 주요 변수였다고 하는 걸 보면 당시 대학생들에게 미팅의 힘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이 될 일입니다. 당시 대학가의 미팅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했던 반 미팅과 흡사했습니다. 대개 남학생들이 여학교를 찾아가 만남을 제의했고, 장소를 대여해 단체 만남을 가지는 형식이었습니다. 당일 비용은 대표들이 티켓을 팔아 모은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달라지긴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첫 데이트 비용은 늘 남자의 몫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스무 살의 낭만’이었던 미팅은 70년대 중반 엄혹한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미루어 짐작건대 유신정권과 신군부 등으로 미팅 현장보다는 시위 현장에 설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KAI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련한 기억 속, 당신의 미팅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3월호의 추억은 미팅입니다. 젊은 시절 나를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던 미팅. 다방부터 카페까지 그 장소는 다양했지만 설렘만은 그대로인 그 시절. 여러분 기억 저편의 미팅은 어떠했나요?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생산관리팀 김선옥 사원

30대

20살 풋풋했던 시절의 미팅을 추억해보면 먼저 웃음이 나오네요. 그때는 단순하게 사람의 얼굴만 보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과 짹이 되지 않아 아쉬워했던 기억도 떠오르네요.



성능개량생산팀 김일용 PS

50대

20대 초반에는 회사 대 회사로 하는 단체 미팅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주로 주변 저수지 옆으로, 야유회를 겸해서 진행됐어요. 모든 준비는 각 회사 대표가 하고, 전체를 소개한 후 바로 간식거리나 간단한 놀이를 한 기억이 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면 그 회사 부서로 연락해 다시 만나기도 했지요.

KFX계통종합팀 김다운 연구원

20대

미팅이 잡힌 후 지하철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곳은 만남의 장소라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도착한 후 상대방들이 보이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앞의 여성분이 받았어요. 전 그분인 줄 몰랐어요. 사전에 받은 프로필 사진과 너무 달랐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네요.

APT기술팀 박성훈 차장

40대

쑥스러워서 소개팅이나 미팅을 잘 하자는 않았는데요. 어느 날 친구의 부탁으로 나간 자리에서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0대 후반이었는데 학생처럼 앤돼 보였어요. 말투도 나긋나긋하고 선한 인상의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데이트 신청을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제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나갔던 소개팅이 제 운명을 바꿔버린 거죠. 하하.

'세대공감 KAI'는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매달 웹진(kaiwebzine.com)을 통해 참여해 주세요. 참여자 중 지면에 글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주제 : 만우절
- 질문 : 만우절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있나요?

4월호

서울사무소 국내사업본부 단합 산행

속리산 문장대에서 경영목표 달성을 다짐하다!



서울사무소 사람들이 회합을 다지기 위해 겨울 산행을 떠났다. 2월 18일에 떠난 속리산 산행은 우리의 현재를 인식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끈끈한 연대의식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자리였다.

글 전략홍보팀 한정은 과장

산행으로 화합하는 서울사무소

지난 2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 여느 주말이면 들어 지게 자고 있을 시간에 국내사업본부가 주관한 속리산 겨울 산행을 다녀왔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이번 산행은 재경본부 IR팀, 해외사업본부 사업관리팀,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서울사무소 임직원 101명이 늦잠을 반납하고 길을 나선 것이다.

2월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지만 날이 생각보다 좋아 다행이었다. 같은 건물의 4층과 8층에서 매일 일을 하지만 바쁜 업무로 자주 얼굴을 보지 못했던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산행 일정은 법주사에서 세심정, 신선대를 통해 문장대로 가는 코스다. 속리산 끝자락에 있는 법주사가 저 멀리에서 보였다. 법주사를 지나자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됐다. 이날 우리가 걸었던 거리는 12km, 높이 1,100m! 결코 쉬운 코스가 아니었다. 날씨도 만만하지 않았다. 장장 6시간을 걸으니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지만 종장기 5조 원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실단 위 단합과 배려 평가 등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다

짐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정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동안 회사에서 갔던 산행 코스 중 이름답기는 단연 최고였다. 동료들이 나중에 가족들과 꼭 와야겠다는 말을 할 정도니 말이다. 등산길 중간에 휴게소가 있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풍광을 바라보니 기분도 상쾌해졌다. 특히, 응답은 얼음이 꽁꽁 얼어있지만 아이젠을 신고 걷는 동안 뿐드득 소리가 나서 걷는 느낌도 좋았다. 아! 이런 걸 두고 겨울 산행의 묘미라고 하나 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뭉치다

올해는 우리 회사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수주에 대한 갈망이 크다. 이 상황은 마치 칼바람을 맞으며 정상을 향해 오르는 산행과 같지 않을까. 사실 혼자 가라고 했다면 도중에 되돌아왔을지도 모른다. 자칫 위험해보이는 경관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낙오자 없이 무사 귀환한 일은 위험한 구간일수록 뒤돌아보고, 기다려 주고, 불잡아주며, 서로를 더 쟁기 단합된 마음가짐 덕분이 아닐까. 아마, 산세가 험하지 않았다면 일찍 올라와 쉬려고만 했을지도 모르겠다. 역설적이지만 쉽지 않았기에 화합이 저절로 형성되었으리라. 걷는 내내 머릿속에는 '배려와 안전'이란 단어만이 맴돌았다. 아직도 다리가 육신거리지만 곧 괜찮아진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 회사도 이번 겨울 산행처럼 끈끈한 화합으로 올해의 경영 목표를 쉽게 달성을 하리라고 믿는다. 연초 전사전략회의에서 국내사업본부의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슬로건 'Deep change or slow death'를 마음 속 깊이 되새겨보는 산행도 무사히 끝났다.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반갑습니다'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정열과 패기로 뭉친 14기 신입사원들의 면면을 만나 저도 반가웠습니다. 특히 110개의 단어로 KAI를 새롭게 정의한 것을 보니 그들의 창의력과 다부진 각오 그리고 설렘이 가득 물어나서 흐뭇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들이 KAI의 막내로 조직에 잘 융화돼서 활기를 불어 넣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종상 님(대전시 서구)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KAI 나눔봉사단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추진할 예정인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는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아울러 이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입사원이 채용되어 KAI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기대가 큩니다.

김현수 님(충청북도 음성군)

아직 신입사원이라 분위기를 파악하며 회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Fly Together>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부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회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는데 사보 한쪽에 제 이름과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 KAI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뿐더네요.

변원태 연구원(헬기비행계획팀)

KAI 나눔봉사단이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체계적이고 폭넓게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멋져 보이네요. 예전에 저도 결손가정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쁜 시간을 핑계로 금액만 지원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멀지 않은 시기에 다시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KAI의 정을 나누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홍우 전문기술원(최종조립생산팀6지)

2017년 신입사원들이 KAI의 미래를 밝게 빛내기 바랍니다. '글로벌 스토리'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다'의 내용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회사도 도입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하네요. '역사 속 항공인'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라도 항공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욱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영 부장(경영전략팀)

본부별 사내 기자단

전략기획본부 MRO준비팀 박주호 사원 055-851-0852

재경본부 자금팀 최준형 사원 055-851-9711

국내사업본부 회전익사업관리2팀 정종원 과장 055-851-6175

해외사업본부 수출기획팀 이유리 과장 055-851-9583

구매본부 구매기획팀 김민준 사원 055-851-9097

개발사업관리본부 개발사업기획팀 김미영 사원 055-851-1578

고정익개발본부 T-50체계팀 손영호 선임 055-851-9956

회전익개발본부 LAH체계팀 노나영 선임 055-851-9140

대전연구센터 우주시업팀 박용현 사원 055-851-6737

생산본부 생산계획팀 장재완 부장 055-851-9353

CS본부 운영기획팀 안재운 선임 055-851-2867

품질총괄 품질기획팀 이청영 사원 055-851-9495

QUIZ



Q 황금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 그 날. KAI인의 자부심이 한껏 부상한 순간은 2002년의 8월입니다. KAI의 위상을 세상에 알린 항공기 T-50은 이후 여러 국가에 수출됩니다. 수출된 국가 3곳 이상을 적어주세요.
('KAI 히스토리' 중에서)



<Fly Together>를 읽고 난 소감과 독자 퀴즈의 정답을 엷서 또는 이메일(hybae@koreaero.com)로 보내주세요. 내용을 보내준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KAI의 소식을 반응형 웹진에서 만나세요!

KAI 사보 <Fly Together>를 반응형 웹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Fly Together> 표지 또는 아래의 QR코드를 검색창에 갖다 대면 웹진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더 편리하게 바뀐 웹진 <Fly Together>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PCL나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kaiwebzine.com 입력하면 바로 웹진 <Fly Together>를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보 앱 **를 설치하세요**

- **안드로이드 편**
 - ① 네이버 QR코드 스캔을 통해 웹진 <Fly Together> 홈 화면 열기
 - ② 웹진 <Fly Together>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③ '더보기'에서 '홈 화면 추가'를 누르면 아이콘 생성 완료
- **아이폰 편**
 - ① 네이버 QR코드 스캔을 통해 웹진 <Fly Together> 홈 화면 열기
 - ② 웹진 <Fly Together>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③ '더보기'에서 'Safari로 열기' 클릭
 - ④ Safari의 하단 '공유탭'을 클릭한 후 '홈 화면 추가' 클릭하면 아이콘 생성 완료

웹진 이벤트

위 방법에 따라 휴대폰에 사보 앱을 설치한 후,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 보내주세요. 선착순 10명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 상당\)](#)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대상 전 직원
신청기간 3. 6(월)~3. 10(금)
신청방법 캡처한 이미지를 기업문화팀(배화윤 차장 hybae@koreaero.com)에 전송